

62호, 2006,7-8

책을 열며 / 자랑스러운 강정구 교수 '출판기념회' / 홍근수

현장-미군기지탐방 / 울여름, 그들의 수상한 작업을 확인하다 / 오미정

현장-미군기지탐방 / 지역에서 만난 사람들 / 정리:오미정

현장-미군기지탐방 / 이렇게 심각한줄 몰랐다 / 탐방단

축하시 / 그의 교회에 부쳐-통일의 상징 홍근수 목사의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 이기형

특별기고 / 미군재편과 일본 보수체제의 군사화 / 고케츠 아츠시(야마구치 대학) / 번역:김
분석, 김두한

참가기 / 대체 평화가 무어냐?-오키나와에서 만난 4박5일간의 평화 / 김슬기

평화비둘기 / 중동의 피, 중동의 우주전쟁 / 최성희

| 여는 그림-窓 |

여름은 순례와 행진의 계절이다.

서울 청와대 앞에서 평택 대추리까지 “평화야, 걷자”

전북 군산에서 평택까지 “자전거는 평화를 신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돌아다닌 “전략적 유연성과 미군기지 탐방”

해외에서 만난 평화 “평택에서 오키나와까지 평화기행”

그리고 가장 고전적인 “815 통일선봉대”까지

적게는 20명이, 많게는 1000명이 순례와 행진과 탐방을 하며

우리아닌 그들에게 외친 것은 “평화를 택하라!”

글·사진 | 오미정

자랑스러운 강정구 교수 ‘출판기념회’

평통사 상임대표 홍근수

만경대 방명록 사건이 났을 때 어떤 스님이 동국대학교 총장에게 했다는 얘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그때도 학교 일각에서 징계 운운 했는데 그 스님은 총장에게, ‘이 시골대학을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든 교수를 징별한데서야 말이 되는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의 논지에 찬성합니다.

그는 오늘 출판기념회를 하는 『미국을 알기나 하나요?』(통일뉴스, 2006)라는 책을 최근에 발행했습니다. 서평 아닌 책 소개를 좀 해 볼까 합니다. 그의 금쪽같은 21편의 글들과 ‘6.25 필화사건을 되돌아보며,’ ‘공소장,’ 그리고 금년도 2월의 ‘첫머리 진술서’를 이 책의 보론으로 각각 뒤편에 달았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미군(혹은 미국)은 우리 한국인에게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미군은 우리 민족의 점령군이고 압제자이며 통일 훼방꾼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를 뒤늦게 공부하게 하고 생의 목적으로 삼다시피 하게 한 그것은 “냉전 영역 허물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그의 “학문(적) 일생”이었다(252쪽)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보적인 시각에서 맥아더 장군을 ‘38선 분단 집행의 집달리’(83쪽)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맥아더 장군을 숭배하고 나라를 구한 은인으로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 것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 “이 고마운 은인인 미국에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보은론이 판을 치고 미국을 비판만 해도 ‘배은망덕’하다고 질타한다. ...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 이 만병통치 같은 대미 생명은인론과 보은론에 덜미가 잡히고 주눅이 들어야 하나? ... 생명의 은인이라기보다 생명을 앗아간 박탈자가 아닌가? 언제까지 이런 ‘대미 자발적 노예주의의 포로’가 되어야 하는가?”(87쪽) 저는 이 국민들이 강 교수의 심각하고 역사적인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6.25를 ‘통일내전’이라고 규정하고 맥아더의 개입이 결정적으로 내전을 세계전쟁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을 학살하였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만약 남의 집안싸움인 통일내전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한 달 내에 끝났을 것이고 사상자는 아무리 많아도 남북한 합쳐 1만 명 미만일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 3백 99만 명이 더 많이 죽게 되었다는 의미”(87쪽) 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맥아더 장군은 중공군이 개입했을 때 원자탄 26개를 투하할 계획이었으나 미국 대통령은 그를 해임시켜 더 이상 8군을 지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맥아더의 생각대로 되었으면 강 교수는 내란 성격을 가진 한국 전쟁은 소련의 개입으로 제3차 대전으로 이어졌을 것이고 아마 한반도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거나 우리 민족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88쪽)

강교수는 미군들의 희생에 대한 ‘보은론’과 맥아더 장군 숭배에 빠져있고 ‘주눅 들려 있으나’(87쪽) 오히려 역사적인 준엄한 사실에 눈떠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동

상을 세우고 또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금이야 옥이야 껴안고 있어야겠다고 폭력물리와 색깔물리까지 벌이는 판이니 그야말로 난장판이 따로 없는 것 같다.”(88-89쪽)고 통탄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우리 민족의 분단을 항구화하겠다는 음모를 가지고 있고 결국 ‘통일 핵방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군의 완전한 철수만이 한국 문제의 근본해결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주범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러한 미국에게 “군사기지와 이전 비용 및 주둔비까지 천문학적으로 지급하면서 이 땅에 최소한 (앞으로) 50년, 아니면 영구히 주둔하게 한다. 이것이야말로 도둑놈에게 곳간 열쇠를 주는 꼴인데 자발적 노예가 아니면 이런 짓거리를 누가 한단 말인가?”(194쪽)

그는 한·미 관계를 동맹관계가 아닌 우호친선협력 관계로 ‘새판 짜기’로 새로운 안을 제시합니다. 그는 “주한 미군을 철군시키고 한미군사동맹을 폐기하고 일본·중국·러시아 등과 맺고 있는 우호친선협력 관계로 변경시키는 한·미관계 새판 짜기”를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182쪽)

사실 말이지만, 동국대학교가 한국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서울대를 1위로 한다면 연대, 고대 등이 그 다음이고, 동국대는 아무래도 3위 정도의 대학교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강정구 교수 때문에 그 이름이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신입생 지망율도 높아졌을 것이고, 동국 대학교의 다른 교수들도 유명세를 탔을 것입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동국대 이사회는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그를 징계했습니다. 그래서 유죄판결을 받게 된 셈입니다. 이 점, 그야말로 적반하장 행위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강 교수에게 표창은 못하나마 징계를 하다니요!

그가 몸담고 있는 동국대학교가 ‘한 시골대학’에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그 위상이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국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를 ‘보직 해직’이란 결의를 하여 보상 아닌 징벌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는 대학의 위상을 높여준 데 대한 보상이 아니라 배신입니다.

강정구 교수가 있어 우리(민중민주진영)는 그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한국인으로 기를 펴고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올 여름, 그들의 수상한 작업을 확인하다

“그들이 머무르는 곳엔 ‘희망’이 없다. 그들이 떠났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고향만 남아 있을 뿐.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땅을 삼키려 한다. 초록의 생명력을 흡수하여 잿빛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악마적 능력.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는 <괴물>의 근원. 새로운 세계질서를 위한 그들의 야심만만한 작업은 착착 준비되고 있다.”

60년이 넘도록 이 땅의 이질적 존재를 용인하며 살아온 우리는 ‘전략적 유연성’과 ‘재편·재배치’로 우리에게 더 큰 위협이 되는 이 이질적 존재에 대해 얼마만큼이나 알고 있을까? 꼬박 2년 넘게 봤던 대추리 하늘을 수도 없이 날아다니는 수송기와 헬기에 대해, 때마다 벌이는 한미연합연습을 빙자로 수천명씩 몰려오는 해외미군들은 어디서 무엇을 타고 와서 무슨 무기와 장비로 어떤 훈련을 하는지,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이라크 전에 참전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 이 미군을 여전히 ‘주한’미군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우리나라가 미국이 벌이는 침략전쟁을 위한 진초기지, 병참기지가 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파괴되고 있는지...

<전략적 유연성과 미군기지 탐방>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주한미군의 군사 변환 및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기지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를 조사하고, 주민들의 애로 사항과 투쟁과정을 직접 몸으로 느끼고 행동함으로써, 기지 감시와 폐쇄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

탐방은 7월 25일부터 6박 7일 일정으로 과주 무건리 훈련장, 영월 필승 사격장, 왜관 캠프 캐롤, 대구 캠프 워커, 부산 제3함대 사령부, 광양, 군산 새만금과 공군기지, 매항리 농섬, 오산 공군기지를 돌아다니며 조사활동과 보고회 및 간담회, 항의 행동으로 진행되었다.

한층 더 공격성이 강화되고, 작전반경도 넓어지는 부대들

미군은 2008년까지 12,500명의 병력을 감축하는 한편 150개 항목에 110억 달러를 투입하여 전력을 증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의 전력증강 사업의 하나로 요격미사일은 PAC II에서 최신형 패트리엇(PAC III)로 교체되고 있으며, 평택으로 옮겨 올 주한미군 2사단 ‘제1 중무장여단전투팀’에 무인정찰기 ‘새도’ 4기가 추가로 배치돼 운용되고 있다. 또한 평택의 아파치 롱보우 헬기대대는 북의 1개 기계화 군단을 섬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공격용 부대이다. 그 외 M1A1 에이브럼스 탱크를 개량하고, 전술지휘통제(C4I) 체제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탐방에서도 실제로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산과 군산 공군기지에서는 육안으로도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대가 보이고 (사진 1), 군산 공군기지는 새로 배치되는 아파치 헬기부대를 위해 15만평 이상이 확장 예정이라고 한다. 군산 공군기지 앞 새만금 갯벌 쪽으로는 유도 등이 기지 바깥으로 100M 정도 뺄

나와 있었는데, 2004년에 설치된 이 유도등 설치물은 활주로 연장효과를 위한 것으로 일반 전투기보다 활주로가 더 길어야 하는 스텔스 전폭기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산과 군산 기지에서 1번 숫자가 쓰인 탄약장이 새로 지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 2) 1번 탄약장은 경기북부 훈련장 근처를 지나갈 때도 볼 수 있었는데, 이시우 씨에 따르면 탄약은 종류에 따라 1번부터 4번까지 번호가 매겨지는데 1번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량 폭발이 일어나 화재진압 자체가 불가능한 탄약을 의미한다고 한다.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에 새로 배치되는 신형 무기들은 작전반경이 기존보다 2-3배 늘어나는데, 이는 훈련장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국방개혁안에 의하면 한국군도 신무기 도입으로 기존의 군단, 사단의 작전 영역이 늘어난다고 한다. 한국군 군단, 사단 작전영역은 현재 300km×70km, 15km×30km인데, 미래에는 100km×150km, 30km×60km로 늘어나는 것이다. 당연히 군 훈련장도 두 배 이상 확대하는 것이 필요 하게 된다.

1982년에 만들어진 1군단 종합훈련장인 550만평의 무건리 종합훈련장은 미군이 연 13주를 사용하는 한미공동훈련장이다. 미군은 민통선 안의 파주 스토리 사격장, 다그마노스 훈련장과 연계하여 이곳 무건리 훈련장에서 종합 모의전투훈련을 한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곳을 포 사거리 확장과 장비증강에 대비하여 1100만평 규모로 확장할 계획이다. 스토리 사격장도 새롭게 20만평을 확장한다.

20년 넘게 마을길을 시도 때도 없이 지나다니는 기갑부대의 훈련에도 그저 나라를 위해 묵묵히 참아왔던 순박한 무건리 주민들도 이번 훈련장 확장계획에 맞서 ‘무건리 훈련장 백지화 추진위원회’를 꾸려 저항을 시작하였다.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 기지의 확장과 전력증강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신속기동화 된 미군의 증원전력이 한반도에 신속히 들어오는 것도 의미한다.

증원전력의 신속 전개를 위해 왜관의 캠프 캐틀과 대구의 캠프 위커에는 증원 병력이 사용할 장비가 사전에 배치되어 있고, 평택 캠프 험프리는 중무장한 공수부대원 100명 이상을 20시간 이상 거리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최신의 C-17 수송기가 이착륙 할 수 있는 활주로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괌에 배치되어 있는 사전배치 전단은 미 해병대가 한 달 동안 사용할 무기와 장비를 상시적으로 대비하고 있으며, 괌과 오키나와의 해병대는 초고속 수송함으로 20여 시간 만에 포항에 배치될 수 있다.

때마다 실시하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한미연합연습은 바로 증원전력의 신속 전개 훈련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3월의 만리포 상륙훈련이 그 한 예다. 이들이 경기 북부 훈련장으로 이동하여 사격훈련, 전술훈련, 도하훈련을 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은 마음만 먹으면 바로 실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전쟁발발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일체화 경향

오산 미 공군기지 내에 있는 한국 공군 작전 사령부, 부산 해군 제3함대 사령부 부두에 접안하는 미 태평양 항공모함 전투단, 무건리, 필승, 직도 등 한국군 훈련장·폭격장을 사용하고 있는 주한미군...

이런 사실들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일체화 경향을 드러내는 징후들이다. 한미연합지휘통제 자동화체계(GCCS-K) 구축, 한미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을 고려한 신무기 도입 등을 볼 때 일체화 경향은 기지와 시설 등의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포괄하고 있다. (사진 3, 4)

한미 양국군의 기지와 시설의 일체화는 비교적 최근의 일로, 오산의 한국군 공군작전사령부는 원래 기지 안쪽에 있었는데 최근에 새로 증축되어 한쪽 출구 쪽으로 나와 있고, 출구는 한국군 헌병과 미군이 함께 보초를 서고 있었다.

부산 제3함대 사령부 부두에는 올 6월에 확장 이전하자마자 미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가 접안하였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의 말에 따르면 과거에는 항공모함이 접안한 경우는 없으며 항상 외항에 정박해 있었다고 한다. 미 해군 장거리 전력 투사의 핵심 무기체계인 항모전투단의 접안 시설을 한국군 기지가 갖추게 된 것이다.

한국군과 미군이 기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불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군 기지보다는 자국군 기지가, 군 시설보다는 민간 시설이 반발이 덜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필승 폭격장 대책위를 세워 투쟁해 온 영월의 주민들도 “진짜로 원하는 것은 폭격장이 아예 폐쇄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군폭격장은 폐쇄하라고 할 수 있지만 한국군 폭격장마저 폐쇄하라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과도한 것 아닌가?”며 애로점을 말하지 않았던가. 그나마 주민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미군 훈련비율을 축소시켰던 영월 필승 사격장은 언제든 미군의 훈련비율은 늘어날 수 있고, 이미 야간 훈련의 90%를 미군이 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군과 미군이 기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적이 달성되고 있음을 말한다.

생명과 환경 파괴, 주민들의 삶과 인권 파괴

일제가 전국의 명승지에 박아 놓은 쇠말뚝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노하면서, 미군이 민족의 영산 태백산에 포탄을 박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의식을 못 갖는 것은 더 큰 죄악이 아닐까? 매항리 농섬의 바닷가에 무수히 많은 자갈들이 사실은 찌그러지고 녹이 슨 총탄, 포탄 조각이고, 2M씩 박혀 있는 대형 포탄으로 갯벌이 시커멓게 죽어가고 있는데? (사진 5, 6)

평택의 비옥한 농토는 미군에게 주저없이 제공하면서 거대한 자원과 생명력의 보고인 새만금은 매립하여 농토를 만든다고 하더니 이젠 그 매립지를 다시 주한미군 기지로 제공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말라가는 논바닥과 갯벌에선 벼들이 죽어가고, 조개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 땅을 미군기지는 탐하고 있다. (사진 7)

기지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으로 논바닥이 오염되고 상수원이 오염되고, 전투기와 장갑차의 소음으로 소들이 유산을 하고 아이들은 정서불안과 난청에 시달리고 있다. 곱게 잠든 다섯 살 꼬마가 전화벨소리에는 깨어나는데 전투기 소음에는 끄떡도 않는다는 군산 주민의 얘기에 기가 막힐 뿐이다.

다시 대추리에서

반시계방향으로 전국을 돌아 탐방단이 도착한 곳은 대추리, 699일째 촛불행사가 열리는 평화예술공원. 꽤나 어렵게 하지만 운 좋게도 전원이 마을 진입에 성공하였다. (사진 8) (평택 경찰서장은 그 분풀이로 다음날 700일 촛불행사 참여자들을 막무가내로 막았다고.)

전략적 유연성과 미군재배치의 핵심, 평택 캠프 험프리. 용산에 있던 모든 사령부가 몰려 오고, 새로 재편된 중무장 전투 여단이 배치되는 등 주한미군의 두뇌와 심장부, 타격력을 모두 갖춘 기지로 강화되고 있다.

캠프 험프리를 코 앞에 둔 대추리 도두리 마을은 2006년 7월 현재,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오는 기지확장에 맞서고 있다. 거대한 미군의 신군사전략에 대항한 한국인들의 투쟁은 이 조그만 마을의 농투성이들로 대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남은 힘은 그리 많지 않고, 상황은 더 험악해지고 있다. 주민들은 9월 주택 강제철거라는 극악한 폭력에 노출될 처지에 있다. 이들을 지지 엄호하는 것은 '평택이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영월 주민들이나 무건리 주민들만의 몫도 아니다.

미군이 한국 땅에 주둔하는 한, 미군기지 확장과 강화로 인한 피해, 환경 오염문제는 이 땅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문제이다.

지금 당장 우리 동네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삶을 보살피 지켜주는 것이 국가 안보 아니던가? 진정한 안보를 위해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기지강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전 국민적인 반기지 운동으로 일상적인 기지감시활동과 기지확장 저지투쟁으로 기지폐쇄 투쟁을 일궈갈 때 비로소 우리의 안보는 실현될 것이다.

글 | 오미정, 사진 | 최문희

“무너지질 때 무너지더라도, 쫓겨날 때 쫓겨나더라도 한번 억울함이나
호소해보자고 대책위 꾸렸다”

‘무건리훈련장 백지화 추진위원회’위원장 윤병설

해가 뜬다는 확인이 있어야 오늘밤 편안히 잠을 자는데, 여기 주민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없다.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점이다. 벽지가 뜯어져도 이것을 새로 발라야 하나 하는 게 1차적 고민이다. 아이들이 커가니 집을 이렇게 가꿔야지, 소가 새끼를 낳았으니 우사를 확장해야지 하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다.

솔직히 80년대 초에 처음 500만평 훈련장이 조성될 때는 말없이 쫓겨났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도 위하면서 나라안보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도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갖고 살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몇 년동안 훈련장 확장 계획으로 야금야금 협의매수 한다면서 사람들이 쫓겨나갔다.

비가 오고 장마가 지나면 진짜백이로 박혀있는 돌들만 남은 것처럼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고향이니까 박혀 있는 사람들이다. 정부는 이들을 강제로 빼내려고 한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흠을 좀 덮어주면 살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요구는 더 이상 확장만 하지 말라는 것이다. 폭탄 날라가는 거, 흠 날라가는 거 다 참고 살테니까 여기서 살게만 해 달라는 것이다.

“우리는 떠날 수 없다. 여기가 내 고향인데...”

과주 현장사진연구소 작가 이용남

새벽에 훈련한다고 전차들이 마을 길에 짹 들어차도, 임신장애에 청각장애... 그래도 우리는 참고 산다. 아니 제발 살게만 해달라고 한다. 여기는 내 고향이니까...

전차가 마을길로 다니면 연막탄이 곳곳에 터지고 연막탄 꺾데기는 길가에 널려 있다. 전차들은 모가 자라는 논을 그냥 밟고 지나가기도 하고, 말리려고 널어 놓은 쌀도 밟고 지나가 가루로 만들어 놓는다.

집앞에서 놀던 8살짜리 아이가 훈련차에 깔렸는데, 사고 발생 1시간 후에 아빠가 와서 아이를 덮어놓은 하얀천을 들춰보니 아직 애가 살아 있더라네. 사고 수습하려면 미군 헌병이 와야 하는데 헌병 기다린답시고 애를 병원에도 안 보내고 있었던 거다. 결국 병원 문턱에서 애는 죽었다. 그 이후 아이가 갖고 놀던 500원짜리 동전을 손에 쥐고 이 아빠는 훈련때마다 전차를 가로막곤 했다. 내가 여기가 고향인데, 그 아빠 사진 찍으면서 다시 고향에 돌아오게 된 거다.

훈련장 끼고 동서남북 사고 안난 곳이 없다. 전동록씨, 효순·미선이, 박승주 씨... 사고를 낸 미군들은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해병대인데, “우리는 한미소파 지킬 필요 없다. 일미소파만

지키면 된다”고 한다.

일부 사람들은 과주 훈련장 일부가 반환되니까 좋겠다고 하지만, 이게 땅이란 땅은 다 오염시켜놓고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사람들 죽여놓고, 이젠 한국군 훈련장 확장해서 쓰겠다는데 좋아할 일이나. 공청회 때 한국군 대령한테 미군이 한국땅에서 훈련하는 근거가 뭐냐고 따졌더니 2002년 LPP 협정이라고 하더라. 그렇다면 그 전에 한 미군 훈련들은 불법인거 아니냐.

“평택이나 직도가 남의 일 같지 않다”

‘상동을 친평리 미군폭격장 설치 반대 투쟁위원회’위원장 황건국

미군폭격장 저지투쟁을 하면서 시련과 고통이 참 많았다. 이 조그만 마을에서 하는 투쟁을 전국적으로 알려낸다는 게... 태백시민연대 등 많은 단체들이 많이 도와줬지만, 정말 마을 어르신들이 제 자리를 지켜줘서 꼬박 3개월을 농성하며 싸운 거다.

일단 필승사격장이 매향리 대신 미군폭격장이 되는 것은 막아냈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의 각서를 받아냈고, 9개 주민 요구사항 중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지만 상동 번영회가 살아 있는 한 미군 폭격장 반대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한국 공군 기지가 있는 한 미군들은 언제든 폭격훈련 비율을 높일 수 있고, 여기서 안되니까 직도에 가서 폭격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 평택 만 해도 남의 일 같지 않다. 아무튼, 미군 훈련 비율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면 다시 투쟁할 것이다.

또 하나 문제는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이다. 공군기지 안에는 우리가 마시는 상수원이 있다. 수질 검사와 폭탄제거작업을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자고 주민감시제 도입을 계속 얘기하는 데 군사기밀 운운하며 안 받아들여진다. 군이 주민들과 관계개선을 할 생각이 있다면 이런 문제를 말로만 해결할게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확인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장상돈 주민

70년대에 내가 필승사격장 내에서 나무 목재 작업을 해서 오염문제는 잘 안다. 부대 안에 들어가면 폐기물이 어마어마하다. 폭격장에 토요일 날 들어가서 일요일 날 나오고 했는데, 미군들이 월남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폭탄을 하루 종일 구덩이를 파서 50발씩 넣고 원격조정해서 폭파시키더라. 목재 작업 하다가 폭파한다는 방송이 나오면 피하고 그랬다. 그 파편들은 거의 수거가 되지 않았다. 박격포 폐기물도 수거 안돼있고. 기관탄총 파편이 박카스병만 한 게 가만히 앉아서 주으면 엄청나다. 그러니 홍수가 나면 여기 아래쪽까지 떠내려오는 게 많지.

태백산 물이 많이들 오염돼서 1급수로 남은 건 지금 우리가 먹는 이 물밖에 안 남았다. 지금 비행기가 폭격훈련하는 것도 문제지만, 오래된 포탄 파편에서 나오는 중금속 오염도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것들이 땅과 물을 오염시키고 있을 것이다.

●김광길 주민

매항리가 그렇게 오염된 거는 하루이틀 폭격훈련 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 않나. 포탄이 녹이 슬고, 그게 땅속으로 스며들고 지하수까지 오염시키려면 수십년이 걸린다. 지금 대충 수질검사한다고 그게 나오지는 않는다. 하루에서 수백발씩 쏟아지는 데 그게 제대로 수거되는 지 안되는지도 모르는 거다. 그 탄피들은 지금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다. 이 물이 다 어디로 가나? 한강으로 간다. 여기가 한강 발원지이다.

전략적 유연성과 미군기지 탐방에 파주, 영월, 안동, 대구, 구미, 부산, 광양, 부안, 군산, 오산, 평택지역 주민분들과 활동가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
-몸으로 느끼고 배운 탐방단의 목소리-

●박석진

솔직히 말하면 미군기지 탐방을 떠나면서 약간은 소풍가는 듯한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운전을 계속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긴 했지만, 오랜만에 전국을 한바퀴 돌며 좋은 경치도 보고, 바람도 쐬고….

하지만 이런 나의 안일한 생각은 첫 번째 방문지인 파주 무건리 훈련장에서부터 여지없이 깨져나가기 시작했다. 훈련장 곳곳에 시체처럼 널려있는 포탄더미들, 마을의 좁은 길을 가득 메운 전차의 행렬, 그 전차에 깔려 죽은 아이 아버지의 절규 등을 담은 사진들과 주민들의 증언은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눈물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시작이었다. 다음날 찾았던 영월의 필승사격장. 고통은 역시 그곳에서도 진행되고 있었다. 사진기를 갖다대는 곳마다 그림 같은 절경이 찍혀지는 그 곳, 태백산맥의 한 자락에도 그 징그러운 포탄은 이 땅의 등줄기를 동강내고 있었다. “미군이 가는 곳마다 그 곳은 폐허가 되었다. 우린 우리의 고향을 폐허로 만들도록 놔 둘 수는 없다”는 한 마을 주민의 절규를 가슴에 새겼다. 셋째 날 경북 왜관의 캠프 캐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마치 마중이라도 나온 듯이 기다리고 있는 지역 정보과 형사와 경찰들의 모습을 보며 그런 의문이 들었다. 저들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부담스럽고, 무서운 것인가? 채 스무 명도 안되는 우리가? 아니면 이 땅의 지배 권력이 상전처럼 떠받치는 미국이? 대구로 가는 길에 들른 구미의 <오리온 전기>에서 우리는 미국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군사적 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한 것인 양 들어와서 단물만 다 빨아먹고는 제나라로 돌아가 버리는 미국의 투기자본. 그들이 휩쓸고 간 뒤에 이 땅에 남는 것은 삶의 터전을 빼앗긴 채 한순간에 실직자가 되어버린 노동자들의 고통만이 아우성치고 있었다. 그것은 미국이 이 땅에 남긴 또 하나의 경제적 폐허였다.

대구 일정까지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정말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 비는 지난 50여 년의 세월동안 미국에게 고통받아 온 이 땅의 민중들이 흘리는 눈물 같았다. 탐방과정에서 확인한 이 고통과 눈물들을 치유하고, 닦아내는 시작으로 우리의 탐방은 또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주은

미군기지 탐방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에는 ‘더운 땀벌 아래에서 걸어 다니며 미군기지의 환경문제에 관해 조사하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다. 또 미군기지들은 보통 평택미군기지 와 비슷하겠거니하는 안이한 생각에 설렘이나 기대는 없었다.

그러나 그런 내 생각을 뒤통수라도 치듯 그동안 몰랐던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배우게 되었다. 집 앞에 탱크가 다니는 미군훈련이 계속되는 파주 주민들의 고통, 농사짓는 땅과 식수가 미군기지로 인해 오염되고 있다며 보상요구를 준비하는 주민들, 기지 앞 도로가 온통 영어 간판으로 가득해 외국에 와있는 듯한 우리 땅의 모습 등을 보면서 화가 나고 열이 받았다.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했던 내 모습이 새내기 후배들 앞에서 부끄럽게만 느껴졌다. 여러 선배님들로부터 미군기지의 문제점을 배우면서 궁금한 게 많이 생겼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우리 땅을 뺏기지 않도록,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막아내도록 더욱 노력하는 사람

이 되어야겠다.

● 권오승

내가 탐방에 참여하게 된 목적은 요즘 관심을 가지게 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좀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싶어서였다. 비록 전체 일정에 다 결합하지는 못했지만 미군기지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았다.

내가 참여한 몇 가지 장소들 중 무건리에서는 미군의 행패에 대한 사진들이 기억에 남고, 영월 필승공군기지에서는 공군이 실직적인 해결책을 내세우지 않은 게 안타까웠지만 주민들과 대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는 인상 깊었다. 개인적으로 이번 탐방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내가 아는 것이 너무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아는 것이 없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느끼는 안타까움이 탐방하는 족족 있었던 것이다.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또 참여하고 싶고 그때에는 좀더 많은 것을 알아 와서 더욱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

● 박상훈

평소 미군기지 확장 반대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추리에만 관심을 가졌던 나에게 이번 미군기지 탐방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다. 물론, 정기 구독하는 모 잡지에서라도 미군기지와 관련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읽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할 거란 생각은 탐방 전에는 좁쌀만큼이라도 해본 적이 없었다.

매향리처럼 해방 아닌 해방을 맞이한 곳, 오산기지처럼 귀를 막지 않으면 괴로운 활주로 옆에 사는 사람들..., 우리나라 땅이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위한 발판이 되는 것은 절대로 두고 볼 수 없다. 내가 아직 어린 나이이긴 하지만 좋은 것, 나쁜 것은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한 우리나라에서 미군기지를 몰아내기 위해 끝까지 싸워 보고 싶다 (대추리에서도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ㅎㅎ).

나 또한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 미군이 가져다 주겠다고 하는 평화는 '거짓 평화'이다. 미군에 의해 생기는 그 많은 분노할 일들을 미군이 주는 '거짓 평화'를 위해 감당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나마 얇디 얇은 '거짓 평화'마저 깨져버리는 경우는 대한민국 땅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후일 테니,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막지 않을 수 없다는 건 당연한 이치다. 부족한 나를 데리고 다니며 값진 것들을 알려주신 평통사 분들, 같이 다니신 범민련 분들에게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오혜란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는 (영월 필승) 대책위 임원분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역시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주민분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탐방이었다.

● 이근용

평소 평택에 관심이 있어 이번 기회에 미군기지의 횡포와 전략적 유연성을 알아보기 위해 비록 2박 3일뿐이지만 탐방에 참가하게 되었다. 첫날 무건리에서 미군의 횡포에 관한 사진을 보고, 둘째 날 상동(영월)에서 주민 분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군기지에 직접 가서 브리핑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3일간 많은 것을 배웠지만 아직도 배울게 많다는 것을 느꼈고, 주민 분들에게서 너무 좋아해주시는 데에 기쁘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안타깝기도 했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참여하여 많은 것들을 배우고 주민 분들께 힘이 되어 드려야겠다.

●윤현

처음 탐방에 참여하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선뜻 결심하기가 어려웠지만 1학년 후배들이 흔쾌하게 참가 하겠다는 것을 보고 참가를 결심하게 되었다. 어렵게 결심한 만큼 남는 것도 많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우선 미군기지가 있음으로 해서 겪는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직접 듣고 같이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다른 사람에게 100번 듣는 것보다 직접 지역 주민들에게 듣는 것이 나에게나 후배들에게나 훨씬 느껴지는 바가 컸다. 또 보통 미군기지 싸움이 지속적이고 긴 싸움인 만큼 지치고 힘든 지역 주민들에게 작지만 힘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의 평택미군기지 투쟁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정동석

영월 필승 공군기지에서 브리핑 하던 대대장이 ‘평양 공격’이라는 표현을 아무 생각없이 쓰는 것을 보고 충격이었다. 적이 누구인가 하는...

●최성훈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 정말 살아있는 공부구나’하고 느꼈다. 미군이 세계와 한반도에서 벌이고 있는 음모를 파헤쳐야 하는 임무와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먼저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종양

과주 무건리는 몇 차례 가봤는데, 갈 때마다 느낌이 다르다. 미군훈련으로 목숨을 잃은 이들의 보상금으로 산 얼마 안 되는 땅마저 이번에 훈련장이 확장되면서 빼앗길 처지에 있는 할아버지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

●조영신

과주, 영월, 왜관, 대구, 부산, 광양, 군산, 매항리, 오산, 평택 미군기지를 방문, 미군기지 앞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반대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주민대책위 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피해사실을 더욱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전략적 유연성은 미군기지를 대북선제공격과 동북아 분쟁을 위한 전초기지, 병참기지화하여 주한미군이 신속기동군으로 한반도를 거점삼아 해외분쟁개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고 국가안보(국민의 안전과 평화보장)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아내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탐방하면서 느낀점은 미군기지에 의한 피해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할지도 모르는 불안감과 주민생존권의 위협과 환경오염, 수질오염, 폭격으로 인한 소음공해에 의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문제는 자주국방과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이다.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군기지를 폐쇄하고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철폐시키기 위해 각 지역에서 주민대책위가 꾸러지고 투쟁하고 있는데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지속적이고 꾸준한 투쟁을 전개하여 오염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평화롭던 마을을 파헤쳐 평택주민들이 마을에서 쫓겨나고 농민들이 농사를 제

대로 짓지 못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을 중심으로 투쟁을 확대하고 재협상을 실시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평화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최문희

현장을 보고 충격과 분노를 많이 느꼈다. 미리 많이 공부하고 왔어야 했는데, 아쉽다. 광양에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주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냈다는 실천 사례를 듣고 인상 깊었다. 또 광양 분들이 왜관까지 가서 식당 등에서 현지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왔다는 얘기 듣고 관성적으로 임했던 모습을 반성했다.

●오미정

태백에서 안동으로 이동하는 길이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그 속에 사격장이 숨어 있다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금수강산 곳곳에 무수히 많은 사격장과 기지 실태를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폐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역의 모범적인 사례들을 다른 지역에서도 배울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김훈식

평택에 확장되는 땅 285만평도 너무 넓어서 감이 안 오는데, 그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이 미군기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게다가 한국군은 그런 사실을 숨기려고 하거나 어쩔 수 없다며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다. 전략적 유연성 저지나 평택기지 확장 저지투쟁이나 갈 길이 멀다고 느꼈다. 이제 곧 군대를 가는데, 전쟁이 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들었다.

●유득선

‘평화야, 건자’에 참가했을 때 제주도에서 오신 분한테 화순항 얘기를 들은 적 있다. 중국과 최단거리라는 화순항에는 항공모함이 배치된다고 한다. 공군기지도 만들어진다고 하고...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 미국이 겨냥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짐작하게 한다. 탐방 다니면서 많이 고민하게 된다.

●유영빈

전국을 돌며 미군기지에 대해 알아본다는 설레임과, 기지조사를 위해서는 많이 걷고 산도 타야하지 않을까하는 걱정 속에 탐방은 시작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첫 연대사업이어서 긴장되기도 했다. 하지만, 함께한 평통사 분들이 잘 챙겨주셔서 긴장도 잠시였고 찾아간 지역마다 환대를 받아 6박 7일이 짧게 느껴 질 정도였다. 찾아가는 지역마다 기지 탐방을 하고 지역 활동가분들과의 간담회, 주민들과의 만남, 기자회견·집회 등을 진행하였다.

현장방문과 지역간담회를 통해 새삼 느낀 것은 ‘전략적 유연성에 의한 전력강화와 미군의 재배치, 한미동맹의 일체화가 이미 많이 진척되고 있구나’ 하는 것이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여 병력이 줄고 기지가 줄어들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전력은 강화되고 한국군기지 간판 밑에 미군기지의 경계를 허물며 미군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기지를 늘려가고 있음을 탐방을 통해 목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전국의 상황을 종합하고 연구하는 사업의 필요성과 함께 현재 진행되는 평택투쟁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처럼 역시 책상 앞의 문서나 인터넷보다 현장의 광경과 목소리가 생

동감 있고 구체적이며 쉽게 다가왔다. 많은 분들이 활동보고나 기사를 통해 탐방단의 활동을 간접체험 하셨겠지만 두 번째 탐방이 준비되면 꼭 한번 참가하시길 권하고 싶다.

그 외, 최선희 황윤미 정명진 유한경 박도신 정효민 김상협 김은영 유정섭 진재환 김강연 최복렬 이종일 김현희 강인옥 님이 탐방에 참여하였습니다.

사진 | 최선희

통일의 상징 홍근수 목사의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그의 교회에 부쳐

민족 시인 이기형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감격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홍근수 목사님 70수를 온 정신 온 몸으로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그 뉘라 ‘인생 70 고래회’라 했던가요.
21세기 오늘은
교회 청춘을 팔십 청춘을 구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우리 홍근수님은 반혹발 동안에
항상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는 학생시절부터
가슴에 통일에 대한 열망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 그 열망이 표면화해
통일투쟁 전선에 뛰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4반세기 동안
불요불굴의 정신으로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몸을 던졌습니다.

1986년 8월 어느 날
백악관 앞뜰에
하얀 백주에 천둥이 울렸습니다.
“미군은 한국에서 물러가라!”
“Yankee go home!”
한국 청년 홍근수 목사가 외쳤습니다
백악관 첩탐이 움찔했습니다.
분단 41년만에 처음으로
미국 하늘 아래서
단군 자주정신이 울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언론도 한국언론도 목살했습니다.

홍근수, 그는 누구인가?
천하의 대학 서울대 법대를 졸업
한신대에서 신학을 전공 목사가 된 후

1974년 도미, 콜게이트 라체스타 신학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1987년, 미국 체류 13년만에 귀국했습니다.

“왜 법대를 마치고 신학으로 바꿨습니까?”

“칼빈같은 대종교개혁가도 법학에서 신학으로 넘어갔거든요.”

“하필 어려운 통일운동에 몸을 던진 까닭은?”

“겨레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섰는데 어찌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언자 에스겔도 유대나라 남북 통일을 갈망 예언했고
예수의 일생은 유대민족의 통일운동이었습니다.”

홍목사가 귀국해서 1년 몇개월 지난 1988년 9월 3일 저녁

그는 KBS 심야토론에 출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전제로 내 놓은 다음

역사적 파천적(破天的) 중요 발언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는 인도주의자다.’

예삿사람은 몰라서 말을 못했고

혹여 알아도 두려워서 입을 다물었던 말입니다.

반공교육과 반공악법이 난무하고 판을 찼던

당시 반공국가 대한민국 천지에서

‘공산주의자는 인도주의자다.’라는 말의 충격과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제가 주를 달지 않으면

무책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주를 달겠습니다

360여 년 전 지동설을 찬성했다가

사형언도를 받고도

태연히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한

갈릴레이의 발언에 필적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자식과 이웃을 하늘이라 부르며 사랑했고

가난한 사람과 핍박받는 사람들을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홍목사의 발언에 대해 수구 목사들은

‘홍근수는 김일성의 첩자’라고 극언했습니다.

소련권이 무너진 직후인 1991년 가을이든가

홍목사는

‘소련권에서 무너진 것은 사회주의정권이 아니라 사회주의는 아니다.’라고 명쾌하게 단언했습니다.

이상 두 가지 발언은

목사요 신학자로서의 심오한 지혜와 통찰력의 소산이요

인간으로서는 천재성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근수 목사는, 과연

『아부라함이 부럽지 않다』라는 당당한 신학 명저를 남긴

엄친 홍성만 장로님의 아들답습니다.

홍근수 목사는

1994년에 평통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를 창건했습니다.

평통사가 펼치는 통일운동은 놀랍습니다

미국의 침략과 죄악을 고발 규탄합니다.

통일 중원(中原)을 달리는 준마(駿馬)입니다.

홍 목사의 설교와 강론은 재치와 인간미가 넘칩니다.

또 한때 그는 20여 개의 사회단체 대표나 고문을 맡고 있었으니

그의 지도력과 영향력은 막강했건만

그는 그런 티를 일체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흐흐’입니다.

그의 인품의 옆모습이지요

‘홍근수와 향린교회’, 그것은

8,90년대 명동의 등불이요

우리들의 향수는 오늘도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산천초목은 그 푸르름이 절정에 달해

웃사웃사 생명력이 약동하건만

조국은 61년간 갈라져

우리들의 가슴은 갈갈이 찢어집니다.

이땅에 정치가도 지도자도 인간도 없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높지만

홍목사는 6·15 통일선언을 착착 실천하고 있습니다.

목사 홍근수,

해방신학자 홍근수,

통일운동가 홍근수,

평화주의자 홍근수,

이런 지칭으로 그를 칭송하며

인간 홍근수의 만수무강을

목청 돋우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8월 20일

미군 재편과 일본 보수체제의 군사화

코케츠 아츠시 교수

코케츠 아츠시 교수는 일본 야마구치 대학에서 일본 근현대정치군사사를 연구하고 있으며 평통사 부설 연구소인 평화통일연구소 해외연구위원입니다. 글의 내용은 평통사 및 평화통일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원문 내용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용어나 문장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편집자 주

1. 들어가며

이 글은 주로 주로 군사문제로 논의되어온 미군재편을 전후(戰後) 일본 국가 재편과 보수재편이라는 측면에서 논하려고 한다.

미군재편은 단순히 미군의 기지이전과 전력재배치 문제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미군재편이 일본 및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정치질서에 새로운 군사적 긴장을 가져오는 군사주의 흐름을 야기한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미군재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서 현저하고 나타나고 있으며, 이미 잠재화하고 있는 일본의 <군사화>를 재촉한다.

일미 군사 동맹 노선이 심화됨에 따라 일본의 「임전국가」1)화는 당연한 결과다. 그러한 의미로 미군재편은 일본 국가 재편에 깊게 결부된 문제가 아닐까하는 것이 소론(小論) 문제 의식이다.

또한 미군재편은 일본자위대 조직재편을 재촉하는 것 이상으로 <군사화>를 키워드로 한 정치재편을 초래한다. 기존 양국간 조약인 일미안보조약의 성격 변화에 따라 「전수방위」를 기조로 한 국토방위형의 자위대 역할이 미군과의 일체화 속에서 침공형 「군대」로서의 성격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헌법 개악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후 일본 보수체제의 대담한 질적 변화를 노골적으로 피하는 오늘의 움직임은 파악해야 한다.

일본의 정치체제는 미군재편의 실시와 일미안보 변용에 따라 평화사회에서 군사사회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오늘의 일본 언론계와 여론의 현저한 보수화 경향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젠 일미안보 재 정의에서 신가이드라인(guideline) 합의를 시작으로 일련의 유사법제 제정이라는 정치과정을 밟아 온 일본을 「유사체제국가」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나아가 이제야말로 사실상 전쟁발동을 그만두지 않는 군사주의로 기울어 가야말로 <임전국가>로서의 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임전국가> 일본의 등장을 결정짓는 위상으로서의 미군재편을 고찰하도록 한다.

2. 미군 재편의 목적-미 군사전략의 재검토와 전력 재배치

지금, 왜 미군 재편일까 ?

미군재편은 미군 「전력 전체에 걸친 재편」(『QDR』 2001년판) 목표가 부시 정권하에 「재편성(Transformation)」이라는 이름으로 표면화 한 것으로 일본에서는 이것을 「미군 재편」이라고 말한다. 미군재편을 일본 언론은 「재일미군 재배치」 수준으로 해석하지만, 실제로는 포스트 냉전시대에 있어서 미 군사 전략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그에 대응하는 미 전력 전체의 재배치를 의미한다.

미군 당국은 미군재편의 목적을 아래와 같이 들고 있다. ① 미국본토와 중요 작전지역의 기지방위 ② 상대에 안전한 도피처를 주지 않는 것 ③ 진입이 거부된 지역에서는 능력을 유지방위하는 것 ④ 여러 부대와 그 작전을 통합하기 위해 정보기술의 효과를 높이는 것 ⑤ 정보 네트워크를 공격에서 방위로 진전시키는 것 ⑥ 우주작전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미군본토 방위를 지상명제로 하는 기지기능의 정리 통합, 「테러리스트」 또는 「테러 지원국가」에 철저공격, 또는 해체, 군사혁명과 군의 초근대화 노선의 견지, 전장(Theater)을 우주공간까지 확대할 경우를 대비한 능력의 정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의 미군재편이 왜 이 시점에서 진전되고 있는 것일까 ?

미소 냉전시대에 미국은, 서측 진영의 리더라는 대의명분 하에 실상은 미국 자신의 국익을 확보해 왔다. 반공주의도 공산주의에 대항한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만이 아닌 공산주의 국가를 상대로 한 미국 자본주의 확대를 위한 말 그대로 실리적 문제인 것이었다.

일본을 포함해 서측 동맹제국에 반공주의를 주입하여 반공진영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미국 자본주의를 위한 자원과 시장 확보가 궁극의 목표였던 것이다. 그 일환으로 일본은 75,000명으로 구성된 경찰예비대를 창설(1950년 8월)하고, 재군비와 일미안보조약을 체결(1951년 9월)하였다. 따라서 재군비와 일미안보는 냉전구조라는 국제군사 질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익의 유지와 확대라는 미국 자본주의 요청에서 결과 된 것이었다. 순전히 냉전구조와 반공주의의 소산이었던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전후 미국 자본주의 이익의 유지와 확대라는 노선을 담보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력은 대폭 늘어났다. 그러나 미국의 쌍둥이 적자(무역적자와 재정적자의 심각화)가 악화됨에 따라 군사력은 양적 삭감을 강요받게 된다. 군사력의 역할과 기대에 응하기 위해 미 군부가 내세운 방책이 바로 미군재편에 따른 양적 삭감과 질적 강화였다.

미국의 신 군사전략

소연방 붕괴에 따른 냉전 구조의 종식에 의해 미국은 일국 패권주의·단독행동주의(일방주의)를 채용한다. 단번에 이전 소련의 패권지역을 포함한 시장과 자원공급지를 확보한 미국은 「개입과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전략을 수립하였다. 세계 전 지역이 미국 자본주의의 개입 대상, 이익의 확대 대상이 된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일본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과의 군사적 제휴를 더욱 강화하여 미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저해할 대상지역과 국가를 배제하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 사례가 1991년 1월에 개시한 걸프 전쟁이었다. 여기서 자본주의 이익의 확대를 엿본 여러나라가 미국을 중심으로 다국적군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지상주의적 글로벌 전선에 대한 반항이 머지않아 무차별 테러로 개시된다. 그것이 2001년 9월 11월 세계를 놀라게 한 「동시다발 테러사건」이었다.

미국은 그 직후에 발표한 『4개년 전략재검토(QDR)』에서 「미국 군사력의 목적은 미국 국익을 옹호 진전하는 것이며 만약 역지가 실패한 경우에는 국익에 대한 위협을 결정적으로

타과하는 것이다」(2001년 9월 30일 공표)라며 미국의 국익 옹호와 확충을 위해서는 단독 행동주의(선제공격)도 불사하는 패권주의의 관철을 적나라하게 표명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국익」이 실제로는 「기업이익」을 의미하는 것이 틀림없지만, 「국익」이라는 개념으로 자본주의 문제를 국가 문제로 바꿔치기 한 것이다. 미국은 소련에 대해서는 새로운 위협 설정을 하고 중동에서 동아시아 지역에 이르는 거대한 자원 체재지를 「군사적 경쟁자」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 「불안정한 호(弧)」로 위치지어 군사력 전개 대상지역으로 설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을 「군사적 경쟁자」로 지목하고, 핵 전쟁능력의 향상과 미사일 방위(MD)를 군사적 대응구상으로 내세웠다.

군사력을 주체로 하는 질서 재구축을 신 냉전구조로 일컬어도 좋지만 구 냉전구조와 신 냉전 구조의 공통성은 모두 미국 자본주의의 유지와 확대를 위해 군사전략이다. 전자가 표면상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후자가 반미 이데올로기를 설득하는 국가와 조직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 구체적 표적은 다르지만, 양자는 미국이 군사력이라는 폭력을 동원한 미국 자본주의의 (기업의) 이익의 유지 확대를 꾀한다는 점에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신 군사전략 또는 신 냉전구조는 올해 2월에 공표한 최신 『QDR』 「미국은 장기전에 들어간 국가다」라는 자기규정에서 더욱 명확해 진다. 사실상 21세기를 “전쟁세기”로 보는 미국은 군사수법으로는 「선제공격전략」의 계속적 채용을 확정하였다. 그 결과가 소위 미군재편에 따른 세계 동시적 선제공격체제의 정비인 것이다.

미군 재편에 따라서 미 군사 전력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

미국은 「동시다발 테러 사건」을 구실로 2003년 3월에 이라크에 대한 선제공격을 개시하면서 같은 해 7월 미국 육군 해외 파병 병력 232,759명중 약 14만명의 병력을 이라크 투입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의 「베트남화」는 분명하고, 사실상 이라크 점령 계획은 실패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은 포스트 냉전시대에 있어서 이미 병력 수의 절대부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였다. 미국은 이 만성적 병력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2개국 국제사단」 편성을 구상하지만 실패로 끝났다.

2006년 6월까지 대략 2,600여명의 미군이 전사했지만 미국은 장비를 하이테크화 한 것 이상으로 병력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문제에서 해답을 서둘러 내놨다. 그 연장 상에 미군재편 문제가 있다.

소련이라는 구 냉전 구조의 종언에 따른 거대한 정규 전역(theater)의 축소라는 외재적 요인과 경제력 수준의 상대적 저하와 병력 수의 절대적 부족이라는 내재적 요인을 근거로 하면서 부상한 것이 미군재편이고, 미국은 새로운 냉전구조의 대응하는 전력의 재구축이라는 과제로 일본을 재 정의하는 방침을 내세웠다. 일미 양 정부는 일미안보 재 정의를 통해 안보 한계성을 돌파하면서 안보를 아시아 및 세계 전역으로 확대하는 <안보재검토>를 협의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당한 동맹국이었다. 일본의 「생각하는 예산」에 따라 병력과 기지 유지비가 본국에 전개 배치하는 비용보다도 저렴하다는 사실은 미국에 있어서는 유리한 점이였다. 그 결과 주한미군의 삭감과 주일미군의 실질적 강화를 목적으로 하

는 일본의 병력집중화는 불가피했다. 전력·기동유격군화를 서두르는 미군에 있어서 근거지, 경유지, 지원기지, 전선부대, 사령부 기능을 전부 담당할 수 있는 주일미군기지의 기능강화는 매우 절박한 과제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미 본토에서 육군 제 1군단 사령부(미 워싱턴주)가 카나가와현 자마기지로 옮겨와 아시아 미군을 지휘하게 되고, 또 주일미군사령부를 겸하고 있는 제 5항공군사령부(요코타 기지)가 램 기지로 이전하는 등 이제까지 없던 대담한 병력재배치가 계획되었다.

이제 이 문제는 일본정치와의 관계에 영향을 끼친다.

3. 심화되는 일미군사공동체제의 장래

미군 재편과 일본 관계

올해 5월 1일 일미 안보협의위원회는 미군재편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최종보고서」와 미군재편과 일본과의 관계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공동문서」(Joint Statement)를 함께 공표하였다. 「공동문서」에는 미군재편의 목표와 일미동맹의 강화가 수차례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면 「공동문서」에는 일미양국이 「변화하는 지역 및 세계 안전보장환경에 있어 확고한 동맹관계를 확보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일본이 일본 방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일미안보조약을 근거로 하면서 「세계안전보장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동맹관계를 강화하자고 하는 것이다. 즉 일미안보 대상지역을 단번에 세계로 끌어올리고 여기서 말하는 안전보장환경에 맞춰 미국이 표방하는 군사전략에 따라 대응하려고 결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군재편은 이러한 일미의 새로운 대처를 위한 작업으로 「재편 실시에 따른 동맹관계에 있어서의 협력은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된다. 「새로운 단계」라고 하는 종래 일미군사협력관계에서 보다 심화된 단계를 의미하는데, 군사공동체제의 구축, 요컨대 미국이 실행할 선제공격행동에도 일본은 전면적으로 지원하게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미국 기준에 따라 안전보장환경을 흐뜨리는 대상을 차출, 「환경 보전」을 위해서 군사발동을 정당화할 논리가 통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이란, 북조선, 수단 등은 미국이 말하는 “미숙한 자”라고 인정 하에, 경우에 따라 선제공격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동시다발테러 이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2001년 10월) 및 이라크(2003년 3월)에 선제공격을 강행하였고, 이 선제공격전략에 동맹국인 일본 및 영국을 끌어들었다. 그 외에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수단에 선제공격 가능성 태세를 취하고 있다.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일미관계에서 자위대는 해당지역의 파병이 검토되고 있다. 미국의 선제공격 전략에 일본 자위대가 완전히 발 맞추고 있는 꼴이다.

자위대는 침공군 역할을 떠맡는가?

현재 주목되는 자위대 중앙즉응집단의 창설은 미국의 선제공격전략에 문자 그대로 “즉응”가 능한 부대로 창설하려고 한다. 중앙즉응집단은 장비와 편성 면에서 최정예 해외출격용 전투부대이다. 당초 사이다마현의 아사카 기지에 주둔 예정이었던 이 부대는 미군재편과 연동, 미 제 1군단 사령부를 따라 캠프 자마 배치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중앙즉응집단은 작전운

용사령부(UEX)로서의 기능을 하는 미국 제 1군단 사령부의 지휘 하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즉 자위대 중앙즉응집단이 사실상 UEX의 “직할” 전투부대(UA)로 위치 짓게 되는 것이다.

중앙즉응집단은 표면상으로는 방위청장관의 직할부대로 제 1공정단(습지야)과 제 1헬리콥터사단(키사라즈)을 기간부대로 하는 기동력과 공격력을 담보할 부대다. 이 부대는 해외파병에 관한 계획, 훈련, 지휘를 일원적으로 운용할 준비를 세우고 있기에, 캠프 자마 UEX의 통합운용은 어떤 의미로는 자연스런 움직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일본판 해병대의 본격적인 등장을 의미하며, 각종 부대의 혼합 부대로 이라크에 파병된 육상 자위대와는 근본적으로 그 작전 목표가 다르다. 결국 진짜 전투부대로서의 역할이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부대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자위대가 침공군로서의 역할을 떠맡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중앙즉응집단을 포함 자위대의 역할을 주일·주한미군 재편과 관련하여 보면, 이번 미군재편에서 특히 중대한 문제는 주일·주한미군의 일체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과 일미동맹을 기능적 분업 대신, 대중국 전략 구축과 북한 붕괴전략의 채용에 불가결한 「전쟁 일상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GPR 구상으로는 해외기지를 1급기지, 2급기지, 3급기지, 4급기지 등 4등급으로 재편하고, 재일미군 기지는 1급기지(PPH), 재한미군기지는 1급과 2급(MOB) 중간인 1.5급기지로 재편할 예정이다. 오키나와 현의 카슈노우 기지와 야마구찌 현의 이와쿠니 기지는 1급 기지로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 제 1선 정면기지로 그 기능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에 더해 태평양방면의 미국군 지휘계통 대 정비로, 미국 제 1군단 자마 이동, 미국군과 자위대의 육해공 지휘의 일원화, 나아가 요코다 기지를 대중국과 대북한만이 아닌, 전 세계를 사정거리로 하는 일원적 지휘센타로 재편하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진행 중이다. 평택에 주한미군 기지를 집결, 주한미군은 평택기지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기지 라인과 대구·부산의 수송권으로 그 기능이 분화된다. 대북 침공의 전선을 담당하는 육상부대인 미 2사단의 평택이전계획은 새로운 전쟁계획의 증명이다. 기존의 남북분단선 근접 지역에 배치된 전력이었던 2사단의 평택이전이 실현되면 자유롭게 기동 가능한 대북 침공부대로서의 진지(陣地)를 갖게 된다. 즉 자유롭게 침공기회를 선택 가능한 포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후텐마 기지의 해노코 기지로의 이전 사례에서 보듯 기지 이전이 곧 주한미군 기지 기능의 저하를 의미하지 않는다.

주한미군 기지의 재배치가 사실상 기지 기능과 전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기지 기능 강화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주한미군 37,000명 중 12,500명이 감축되는 것은 결코 삭감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북 붕괴와 대중국 포위의 전력 이전(1.5기지 구상)과 실질적인 기지 기능 강화 및 전력 확대를 목표로 한 것이다. 덧붙여서 말하면 주한미군 전력의 재구성에 따라 한국에서는 중국을 향한 서해안을 따라(수원, 오산, 평택, 군산, 광주) MD 지상발사 미사일인 패트리엇 미사일(PAC III) 64기가 배치될 예정이다. 한반도가 중국선제공격의 기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군사우위전략」에 호응하는 일본

중국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전력재배치의 기저에는, 미국의 「군사우위전략」(military supremacy strategy)으로 표현된 군사사상이 지배하고 있다. 문제는 「군사우위전략」이

선제공격전략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로, 정치외교 교섭에 의한 문제해결의 자세를 포기한 채 군사 공갈과 전쟁도발에 의해 정치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그러한 미국의 전략은 대개는 군사연습의 내용과 강압적인 정치판단으로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

가까운 사례 두개를 든다면, 하나는 올 6월 하순에 괌 근해에서 실시한 대규모 군사연습 '용감한 방패'(Valiant Shield)이다. 이 훈련에는 미 항공모함(에이브러햄 링컨, 로널드 레이건, 키티 호크)과 B-2 Sprits 전략폭격기를 포함해 280기에 다다른 항공기가 투입되었다. 투입한 함선 가운데 상당수가 요코스카가 모항이고, 북한을 사정거리에 포함한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요코스카 모항의 미국함선은 모두 500기 이상의 토마호크 수직발사관을 장비하고 있다. '용감한 방패' 훈련에 이어 6월 하순에서 7월 하순에 걸쳐 하와이 앞 바다에서 미국, 일본, 한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페루, 칠레 등 환태평양 제국이 참가한 「림팩훈련」(환태평양 군사합동연습)이 실시되었다. 이런 대규모 군사연습이 북과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는 배경에는 군사동맹 강화의 지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7월 5일 새벽에 실행한 북 미사일 발사실험의 대응으로 일본정부가 제안한 「제재결의안」 내용이다. 결의안은 경제제재와 무력행사를 가능하게 한 「UN헌장」 제 7장 제 42조(군사적 조치)2) 를 주축으로 하고 있다. 즉, 군사행동의 승인을 얻으려고 한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군사제재를 포함한 내용을 국가간의 분쟁해결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이 철저히 비군사주의를 명기한 일본헌법 제 9조 위반이라는 점이다. 북 미사일 시험 발사를 구실로 사실상 제 9조를 무효화하려는 의도조차 들여다 보인다.

이 「제재결의안」은 중국과 러시아의 강경한 반대를 당하고, 결국은 UN헌장 제 7장에 관해 어떠한 문언도 포함시키지 않고, 일본과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제가를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제재의무가 없는 결의안으로 일단락되었다.

중국은 일본과 미국이 제안한 「제재결의안」이 가결되면 다시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미국이 「유엔군」 모자를 쓰고, 한반도 전역에서 북을 지원하는 중국군과 격전을 벌이는 역사가 되풀이 되는 미조(米朝) 및 미중(米中) 전쟁의 발발할 가능성을 간파하고 미국이 추진할 선제공격전략에 휘말릴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었다. 이번 「제재결의」를 둘러싼 일본·미국과 중국·러시아의 대립은, 요컨대 미국의 군사 글로벌제이션의 동조(일본)와 반발(중국·러시아)이라는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북조선 미사일 발사문제와 일본의 반응

필자는 북이고, 미국이고, 모두 핵병기의 제조와 보유에서 반대하며, 미사일의 발사실험도 반대한다. 현재, 미사일 보유국은 전 세계에서 40개국 이상이며, 미사일 선진국인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인도와 파키스탄 등은 미사일 발사실험을 반복하는 것으로 미사일 개발과 군확(軍擴)에 서로 맹렬히 경쟁하고 있으며 이는 핵병기보유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이다.

북 미사일 발사실험은 무용한 불신감과 경계감을 증폭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개는 미사일 방위(MD)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일본정부와 방위청 쪽 목소리를 정당화시킨다. 미사일 발사실험이 어떤 의미에서 일상화되고 있는 세계의 현실에서 핵병기와 마찬가지로 그 보유나 실험에 엄격한 족쇄를 가하는 국제조약을 숭선해서 제기하는 것이 일본을 포함한 관련 나라들의 임무다.

그런데, 북은 왜 7발의 미사일 발사실험을 강행한 것인가? 그 배경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북의 미사일 발사실험이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맞춰 결행한 사실에서 볼 때 미사일 발사실험은 미국을 의식해 강행한 것은 틀림없다. 북은 6자 회담을 우선으로 하여, 북미 제네바 포괄협의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미국에 북미 간 대화를 압박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작년(2005년) 9월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는, 북미가 「상호 주권을 존중, 평화 뒤에 공존하는 것. 2국간에 관한 여러 정책에 따른 관계정상화 조치를 취한다.」라고 명기했다. 소위, 「대화 대 대화, 공약 대 공약」 원칙을 근거로 삼아 북미 쌍방이 단계적으로 사태 타개에 힘을 다 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미 합의를 되풀이해서 휴지로 만들어 왔다. 그에 대한 반발이 미사일 발사실험이라는 형태로 표현된 것은 아닐까. 두 번째로는 북이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는 일미공동 미사일 방위시스템(MD) 정비에 대한 경고이다. 일본 정부는 MD를 도입하면서 그 이유로 북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억지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해왔다. 그래서 이번 7발 발사실험은 MD를 무효화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미 말한 것처럼 북에 있어서는 요코스카에 배치된 미국 함선에 탑재한 토마호크 수직발사관의 절반이 북을 조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게다가 MD가 일본열도 각지에 배치되어 전개되면, 공격 미사일과 방위 미사일이 일체화되어 일본은 강력한 미사일 발사 기지로 되고 있다고 예상한 것이다. 북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라 할지라도 도리 없이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일본 주변을 둘러싸는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대한 반항이라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이유이건 핵과 미사일의 보유와 발사 실험이 결국은 군확(軍擴)의 명분을 가속화 시키고, 북과 일본이 군사화에 박차를 가하게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이처럼 제동장치가 없는 군확의 악순환 속에, 북조선 뿐 아니라 일본도 완전히 휩쓸려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한 군확(軍擴) 연쇄 속에서, 군사 주박(呪縛)이 강해진다. 그 일례로 북조선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한 한 정치가의 ‘북조선 선제공격도 자위대의 범주다’라는 언급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고이즈미 내각 방위청 장관과 외무대신이 ‘적기지 공격’ 가능성을 거론하고, 또 이를 몰래 지지하는 다른 정치가와 여론의 존재는 평화실현에 의욕을 상실하고 평화의식 포기를 스스로 적나라하게 말함에 다름없는 행동이다.

이 문제의 발언은 미국의 선제공격전략(=예방공격전략)에 충실한 것이지만, 이러한 발언이 공공연히 공식 장소에서 말해질 정도로 일본 군사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를 기화로 방위미사일 시스템 계획의 조기실행을 직면할 일부 야당세력이 오직 방위미사일 정밀도 향상으로 인한 군사효과에만 관심있을 뿐, 이번 미사일 발사문제의 본질은 파악하려고 하지 않은 정치가들의 존재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 직전에, 미국 추종 주장을 주저하지 않았던 고이즈미 내각이 「미국을 빼앗을까 이라크를 빼앗을까」라는 양자택일을 국민에게 묻는 상황이었다면, 이번 「미국을 빼앗을까 북을 빼앗을까」라는 말에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은 이 나라의 정치선택의 경직성이 또 드러난 셈이다.

어찌하여, 다양한 선택 속에서 가장 유효한, 동시에 안전한 방법에 따른 평화현실의 방도를 생각하지 않은 것인가. 그런 양자택일론은 정의와 부정의, 적과 아군이라는 극단적 이원론으로 모든 정치 과제를 파악하려고 하는 극히 빈곤한 정신에서 나오는 군사적 발상이라고 해야 한다. 올해 6월 22일에 해상자위대 함정도 참가해 실시한 하와이 앞바다에서의 미사일 발사훈련은, 미국의 미사일 공격 시스템 정비의 일환이다. 일본이 미사일 환경 속에 자진해서 포함되면서도 북에 대한 군사제재를 소리 높여 주장함은 하늘을 향해 침을 뱉는 행위일 것이다. 일본은 스스로 군사주의에 무자각인 상태로 「임전국가」의 길을 선택한 건

아닐까.

4. 미군 재편과 일본 정치의 보수화

신 가이드라인의 안보 체제의 구축은 미군 재편을 떠받치는 것

지금까지 미군 재편 문제를 미 군사 전략의 전환과 일미 동맹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봤듯이 미군 재편 문제는 최종적으로 일본 보수 정치체제에 근본적 변화를 강요한다.

다시 말해서 미군 재편이 군사 기지의 재분배 및 전력 전개에 그치지 않고 그 실시 과정 및 실현의 조건으로서 일본 외교·방위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군 재편의 목적을 되짚어 보면 첫째, 군사 기지의 재분배 및 전력 전개의 수정, 둘째로 광역을 대상으로 하는 대테러 전쟁의 항구화, 셋째로 미국 자체의 새로운 군사국가화이다. 그래서 일본의 군사국가화, 전투국가화의 달성도는 미군재편에 의해 가능된다. 따라서 미군 재편의 달성은 자동적으로 일본의 정치 시스템 및 경제 시스템,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식의 존재 양식을 더욱 규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은 필지의 사실이다.

일미 신가이드라인 합의 기점으로 「미군 재편에 관한 최종 보고서」 및 「공동 문서」에 의해서 결론지어질 수 있는 일련의 미 군사 전략의 수정 의도 및 목적은 미 정부 및 국방성 문서인 「동아시아 태평양 안전 보장 전략」(1995년 2월)에 제시되어 있다. 이 문서는 동아시아 지역에 전개하는 미군 병력을 10만명 수준으로 유지해야 할 “사활적 이익”이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에 전개하는 미국 국적의 다국적 기업의 경제적 이익, 무기수출 지대로서의 이익(군산 복합체의 이익)의 확보가 목적인 점을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 공헌’이니 ‘국제 평화’니 하는 ‘국제 공공 가치’를 위한 병력 배치도, 전력 전개도 아닌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확인해야 하는 점은 하시모토 내각 당시에 강하게 추진되어 왔던 ‘안보 재정의’와 관련한 일련의 작업이 냉전 구조 종언의 결과라고 하는 인식의 불충분성이다. 그것은 또한 일미 안보 조약 체결과 경찰 예비대 창설에서부터 안보대로 범위를 축소한 자위대 창설(1954년 7월)에 이르는 일본의 재군비가 “냉전의 산물”이라고 하는 역사의식의 과오와 같은 것이다. 안보 조약에 의한 일본 전 국토의 기지화는 일본으로서는 미군에 의한 자유시장 유지활동의 군사 거점화 구상으로부터 나온 것이었고, 일미 안보 체제를 탄생시켰던 미국의 전략은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목적에 한정하지 않고 그 이상으로 미국 자본주의의 자유로운 세계시장 질서 형성과 유지라는 고도의 전략 목표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철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 2차 세계대전을 포함해 그 이후에도 미국의 이러한 전략 목표가 관철되어 온 것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쟁 전의 나치와 일본 제국주의의 위협, 전후 소련의 위협, 리비아(아프리카)와 이란·이라크(중동), 중국·북한(동아시아)도, 미 자본주의의 자유로운 행동을 방해하는 호감가지 않는 존재라는 점에서 동질의 문제로써 받아들여야 한다. 이 같은 문제의 배경에는 냉전 종언에 의한 소련, 동구권, 중국, 베트남 등의 자유시장화로 확대

하는 시장의 출현과 그 처리를 노리는 미국 자본주의(다국적 기업화한 미국 기업군)의 요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미국 군부가 있다. 과도한 군사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하고 미국 자본주의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일본과의 군사동맹 체제의 강화가 끊임없이 지향되고, 새롭게 획득 되어진 시장의 유지와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포스트 냉전 시대의 미국의 신전략(“봉쇄 전략으로부터 확장 전략”으로의 전환)이 <신 가이드라인 안보 체제>라는 결실을 맺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군 재편은 일본의 주체적인 관여로 달성되다.

그러나 미 자본주의와 미 군부의, 이른바 군-산(軍-産)연대에 의한 신전략에, 일본이 단지 추종한다고만 보면 잘못이다. 전후 일본의 체질적 대미종속성이라는 요인과 함께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국적의 다국적기업이 미국 기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점에서 즉, 일미 다국적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점에서 양국 공통의 과제가 있고, 이를 염두에 둔 미군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일미동맹 노선은 결코 미국에 의한 강제적 견인의 결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의 주체적인 선택으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현재화한 일본 자본주의의 구조적 변화, 즉 일미 경제마찰과 엔고의 결과로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로부터 해외생산으로 대폭 전환함에 따라 일본기업의 다국적 기업화 경향이 가속되고 있다. 그것은 유망한 수출처와 해외생산거점의 정치질서와 노동현장의 ‘안정’이 불가결의 요건이 된다. 일본에서도 미국을 필두로 하는 선진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그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 생산시스템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서는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해외 여러 지역에 대한 정치적 관심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까닭으로 과거에는 여러 개발독재 정권의 정책이 일본 수출시장의 ‘안정’을 위한다는 구실로 용인되었다. 거기에서는 사카모토 히로카즈가 ‘주변군국주의’ 이른바 ‘대체군국주의’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 개발독재 국가의 군사화가 일본 수출시장의 안정적인 확보로 이어지는 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일본 국내에서는 그 사이에 수출상대국의 군부독재와는 대조적으로 ‘민주주의’ 또는 ‘민주화’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경제발전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90년대에 걸쳐 개발 독재 국가의 민주화 움직임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들 시장에서 기득권익의 확보가 곤란하게 된 일본은 물리적 강제력 즉, 군사력에 대한 의존경향을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냉전 종언으로 군대의 주둔이 바로 세계대전으로 직결되지는 않는 시대상황이 되었고, 이는 군대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것이기도 했다. 즉 군사주의의 채용이 용이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변용 속에서 이번에는 일본 자신이 군사화 함으로써 기존의 경제적 패권의 존속과 확장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에 있어서 일본의 우경화·군사화의 근본원인이다. 말하자면 ‘민주화’에 의해서 담보된 경제발전으로부터, ‘군사화’에 의해서 담보된 경제발전이란 전환이, 냉전시대 후에 일본이 선택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방침 혹은 일본 자본주의의 군사적 측면으로의 전환이야말로 일미 안보 재 정의로부터 개시된 일미안보의 아시아화 혹은 세계화란 문제이며, 그것에 의해 나타난 신군국주의 국가 일본은 유사법제(=군사법제)로서 주변 사태법, 무력침공 사태대처법, 국민보호법 등을 차례차례 제정하였다. 그와 같은 일본 정부 및 일본 자본주의의 노림수는 괴선박 소동과 납치문제, 이

번 미사일 발사문제 등 북한의 동향과 야스쿠니 신사참배문제, 독도의 영유권문제를 둘러싼 일본과 한국사이의 알력, 거기에 경제발전이 두드러진 중국의 대두 등을 기화로 여론몰이를 통해 국방의식을 발양할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다.

반면에 다국적화가 현저한 일본 자본주의는, 해외에 단독으로 본격적으로 전개 가능한 자위대 군사력을 정비할 여유가 없어, 당장은 이미 군사동맹 노선의 길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외의 반전평화운동의 움직임을 회피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역동적인 군국주의화(臨戰국가)를 주도면밀히 우회하면서 당장은 미국 군사력에 의존·협력함으로써 해외의 이권 확보의 길을 찾는 방침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미군 재편은 전후 일본정치의 보수재편과 군사화를 재촉한다.

본래 외교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의 합의를 취해가면서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고 그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다. 거기서 원칙은 국내안전과 국제평화일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의 현대정치는 국제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미국이 말하는 ‘국제평화’의 실현을 평화실현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일본은 납치문제와 미사일발사를 핑계로 북한의 위협이미지를 부각하고, 지금까지 신가이드라인에 의한 군사적 대응조치의 필요론을 환기시키고 신가이드라인 관련법의 법제화와 TMD(전역미사일방위)의 일미공동연구를 가속화 시켜왔다. 현실에서는 북한이 일본을 침공할 정치적 의도도 군사적 능력도 모두 없다는 일본정부 고관의 발언을 기다릴 것도 없이, 북한의 위협 이미지의 유포가 명확한 정치목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결국, 국내에 잠재한 국수주의의 부각과 군사대국화로의 ‘기분’(고이즈미 수상이 말한 ‘국민감정’)만들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아시아 지역전체의 긴장완화와 평화공동체 구축의 전망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최근에 일본정부는 특히 고이즈미 내각의 5년 반 동안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요청한 재계의 목적도 있고, 일본기업의 다국적 전개에 따라 아시아지역에 특별한 관심을 증대시켜 왔다. 그것은 다국적기업이 현재의 불황에서 국제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써 국가기구와 경제구조의 발본적 개조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분명하다. 예를 들어, 대규모 점포법의 폐지, ‘중앙관청개혁법’의 성립, ‘노동법’의 개정 등, 규제완화와 행정개혁 등을 목적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단행, 그 귀결로서 군사국가 일본의 전면적 전개라는 실체가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고이즈미 내각이 강행한 일련의 구조개혁은 그 의미에서 양극화 사회를 필연화 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군사사회의 고유한 현상이기도 한다.

지금이야말로, 미군재편의 실시과정에 있어서, 일본 재계를 주축으로 포진한 일본의 전후 보수정치가 새로운 단계를 맞고 있다. 그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군사사회의 도래를 피할 수 없는 정치체제의 구축이다. 바꿔 말해서, 고도의 군사사회에 의하지 않고서는 미군재편은 완결되지 않고, 미국과의 군사동맹 노선도 관철할 수 없는 것이다.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미군재편을 완결하기 위해서는 결코 일본의 몰주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 내지 주체적인 관계가 절대 필요하다. 그 문맥에서 보면 미군재편은 일본의 보수구조의 군사화를 의도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미국에 종속함으로써 미군재편도 보수재편도 실행가능한 성질의 것이다.

일본의 군사화를 요구하는 국내세력

미군재편을 기화로 일본의 보수구조의 개편 혹은 보수체제의 군사화를 지향하는 세력은 무엇일까? 그들이 스스로 군사화의 지향성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을까를 떠나서 객관적으로도 군사화란 방향을 선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 세력 중 현시점에서 선두에 언급되는 것은 자위대 제복조3) 일 것이다. 그들은 신가이드라인의 실질적 작성자들이며, 미국화한 군사합리주의자들이다. 그들은 매우 강한 국방의식과 군사주의의 정당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약 70%라는 자위대의 국민지지율과 미국으로부터의 입지확보를 배경으로 자위대 제복조는 자위대의 '신일본군'화를 시야에 넣으면서 가까운 미래에 있어서 자위대의 역할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확고한 군사관료기구의 정착을 노리고 있다. 그 기세는 현행 문민통제를 '문관통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의 논조를 지속적으로 깔면서, 사실상 문민통제의 형해화로 연계할 움직임을 감추지는 않는다.4)

그들은 결단코 제복조 단독의 행동패턴을 취하지는 않는다. 끊임없이 일본 자본주의의 의향에 객관적으로 합치하는 선택을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통막의장의 인정관으로 승격(국무대신화), 군령권(통수권)의 독립, 계급 호칭의 전전(戰前) 호칭으로의 부활, 방위청의 방위성으로의 승격 등의 움직임을 부활하고 있다. 그 제복조의 움직임을 지지하는 정치가들의 존재에 기세를 얻고, 오늘날 통막 의장의 권한확대의 일보 전진이 실현되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방위청의 성 승격이 정치일정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일련의 유사법제(=군사법제)가 제정된 국내에 있어서 자위대의 움직임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롭고, 나아가서는 이라크 특별조치법 등 시한입법이지만 법률에 의한 해외파병도 기정사실화되면서 사실상 전투지역으로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라크에서 육상자위대는 철수했지만, 항공자위대는 전투가 가장 치열한 바그다드 부근에서 수송 임무를 확대하고 있다. 그 같은 자위대의 정치이용이 미군재편 과정과 일미동맹노선의 강화 속에서 확대되고 있는 것은 필지의 상황이다. 거기에는 기세등등한 자위대 제복조의 발언력 또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그 자위대 제복조를 직·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독점자본·다국적기업의 집단이다. 이미 기술한 것처럼 이들 집단은 해외에 생산거점을 둔 관계로 특히 아시아의 여러 국가내의 동향에 매우 민감해 하고 있다. 군사력에 의한 갈등·억압, 최종적 수단으로서 일미동맹에 의한 권익의 안정유지와 확보로의 관심은 강해지고 있다. 그와 같은 위치는 안보 내셔널리즘이 되기는 했지만, 그런 활동에 의한 국민동원시스템의 기동을 촉구하고 있다.

물론 자본주의 그룹으로서 그들은 한통속은 아니다. 과잉의 군사력 강화가 주변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게 불필요한 불안감과 경계감을 가져다줌으로써 안정된 시장으로 평가할 수 없게 되는 가능성을 알아챈 재계 사람들 속에는 일련의 유사법제도 자위대의 해외 파병에도 신중 내지는 반대의 태도를 표명하는 부분도 확실히 존재한다. 특히 전중파(戰中派) 재계인에는 전쟁 체험·침략 체험을 배경으로 군사력으로의 의존 경향, 혹은 일미 동맹 노선 강화에 의한 반미·반일 국수주의 기운이 아시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의 경계감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계감은 당연하게도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 의미에서는 일본 자본주의가 시종일관 군사주의로만 경도해 간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그들이 소수파가 된다고 한다면 현재 자위대와 재계와의 관계는, 오랜 기간에 걸친 방위력 정비 계획의 실시과정을 포함한다면, 현재의 경제환경을 반영하여 급속하게 깊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자본과 군사에 내재하는 상호 보완성이 여기에 와서 표출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전전(戰前) 일본에 있어서 재계와 군부는 준 전시체제로부터 전시체제로 이행 과정에서 소위 ‘군재 포합’라고 칭하는 밀접한 관계를 구축했고 군사와 자본의 연대가 진행해 왔다. 군사가 시장의 확대와 자본침탈의 이슬받이역을 담당하고 그 후에는 자본이 이익을 요구해서 참여한다고 하는 구도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본과 군사의 접합관계가 이후 모든 구실에 의해서 구체화되어 갈 것이다. 또한 그와 같은 구체화를 보증하는 국가 정책이 “국제 평화에의 공헌”과 “국제 안전보장 환경의 유지”를 명목으로 내걸고 나가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는 또다시 자본과 군사의 접합이 군확이라는 형태로 전면화되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자본의 군사화> 혹은 <군사의 자본화>라는 본질이 재확인됨으로써 동시적으로 국민의식의 <군사화>가 현재화하게 될 것이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한 대응으로서 일본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려고 했던 군사력 행사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제재 결의안」에 대해, 거기에 내포된 군사주의에의 무조건 용인론에 대한 최소한의 반발이 미디어를 포함한 국민 여론 속에서 구현되지 않았다는 점도 국민의식에 내재하는 어떤 종류의 <군사화> 경향을 읽어낼 수 있게 한다. 그것은 납치사건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유지하려는 여론의 움직임도 마찬가지다. 이번 결의안에서 군사 제재 및 경제 제재를 의무화한 조항을 포함한 유엔 헌장 제 7장의 문장은 삭제되었지만 ‘제재 결의’에 분주한 일본 정부의 자세는 오히려 특히 아시아 여러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경계감조차 불러 일으켰다.

정확하게 측정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안전에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 냉정 내지는 가능한 객관적인 시점으로부터 분석과 토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 보장 환경’의 유지 및 창출을 위해서라도 철저히 평화주의에 기초한 평화적 수단의 행사가 무엇보다도 확실한 안전 획득에의 방도 임에도 불구하고 폭력과 억압을 내재한 군사 제재와 경제 제재를 쉽게 선택하려는 자세야말로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면 이번 군사화는 자위대 제복조, 자본, 여론의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하면서 정책화하고 있는 것이 정권, 여당 및 거기에 포진하고 있는 일군의 관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일개의 역사연구자로서 다이쇼 민주주의라는 전전(戰前)형 민주주의 사조가 활발했던 1920년대에 있어서 오히려 일본의 군사화가 용이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일합방에서부터 만주사변까지의 역사과정의 분석을, 예를 들어 ‘일중 15년 전쟁 전사’ 혹은 ‘만주 사변 전사’의 제목으로 집필 구상을 가다듬고 있다. 거기에서의 기본 기조는 <군사화>를 유인하는 <민주화>와 <근대화>라고 하는 문제이다. 실지로 민주주의 태내에 군사주의가 자리잡고 있다고 하는 문제의 탐구 없이는 그 당시에 있어서 일본의 <군사화>도 오늘에 있어서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군사화>의 분석도 불가능할 것이고 생각하고 있다.

그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2006년 현재, 1920년대부터 1930년대의 시대를 탄생시킨 현재의 우리들이 대체 어떤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인가, 역사를 교훈에 맞게 고치는 것도 또한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의론의 한편에서는 유사법제(=군사법제)와 일미동맹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스스로의 <군사화 경향>이 전면적으로 전개되는 것도, 군사주의가 발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오히려 지배적인 견해가 되고 있다. 그와 같은 무자각함은 현대 군사주의의 특질을 거꾸로 도드라지게 상징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현대의 군사주의 혹은 군국주의 혹은 파시즘은 극히 세련된 현상 형태를 동반하여 표출하는

것이며, 그런 까닭으로 ‘미소 띤 파시즘’이라든지 ‘배경이 넓은 군국주의’라고 불린다. 현대인의 감성에 부합하면서 시민 사회를 한 단계 한 단계 침식해 가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 군사회가 무통각인 채로 동시에 극히 가벼운 언어표현을 통해서 확산하고 있는 특징을 인식한다면, 또한 현대의 민주주의에 내재하는 군국주의라는 시점을 명확하게 한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진정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지 스스로 해답은 분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5. 평화 구상과 평화실현을 향하여

미군재편을 지렛대로, 한층 더 선제공격전략과 단독행동주의를 기조로 하는 미국의 동향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평화구상을 상정하고, 국제평화사회를 구축하며, 평화실현을 향한 국제사회가 의사의 일치를 보려는 경우에 거대한 장애이다. 미국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로부터 이탈하여,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불참하는 등, 국제협조노선으로부터 이탈하고 있고 유엔헌장과 국제법 혹은 국제규범을 경시하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일본의 요구로부터 나온 북한 「제재결의안」에는 북한에 대한 봉쇄를 노린 UN외교를 전개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받고는 타협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것은 UN외교에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이용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UN을 이용하는 것뿐이다. 국제협조주의에는 일관해서 부정의 입장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는 것은 대 이라크전쟁 등에 대응하는 태도로부터 알 수 있다.

일본정부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한다고 말하면서 동맹의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 대등성을 이해하지 않고, 종속성이라는 왜곡된 관계에 스스로를 몰입해 왔다. 일본이 진정으로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말하려면, 미국의 군사우위전략이 결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미국에 대한 총체적 반발을 살 것임은 필지의 사실이고, 현실에서 반세계화 바람이 세계 각지에서 전개되며, 세계 시민이 미국을 ‘포위’하기 시작했다는 점, 그 같은 한계에서 미국은 세계로부터 고립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정부 및 그 주변에서는 예를 들어 과거 미국의 이라크 선제공격의 시비를 둘러싸고 벌이는 발언에서, “일본에는 일미안보조약이 있다. 이라크문제는 미국에 협력하여 ‘부채’를 만들고, 북한위기의 시기에 미국으로부터 ‘되돌려’ 받으면 좋다”(사사준 유키토 전 내각안전보장실장, 매일신문, 2003.2.28)라든가, “어쩔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일본은 미국의 몇 번째 주와 같은 것이므로”(쿠마 전 방위청장관, 아사히신문, 2003.2.1)라고 하는 등, 극히 굴욕적인 발언을 공공연히 하는 정치가가 있다. 이런 종류의 발언과 감각은 두려울 정도로 현재의 일본정부 주변 및 국민의식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북한은 미국의 이라크 선제공격 시에 “국제여론도 UN헌장도 이라크공격을 막아내지 못했다.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전쟁을 막고, 국가와 민족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이라크 전쟁의 교훈이다”(2003. 4. 6)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덧붙여 “우리에게도 핵 억지력을 준비할 권리가 있다”(노동신문, 2003.6.1) 등 핵무기와 미사일보유에 의한 ‘억지력’을 공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태도야말로 이번 미사일발사 실험의 배경이라고 한다면, 이라크 선제공격의 충격이 더욱이 군부를 중심으로 한 북한정부에게는 일종의 방위수단으로써 억지력효과의 향상과 체제유지를 위해서라도 더 중요하다 라고 통감하게 했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북 미사일발사의 위협성과 문제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군축의 연쇄를 끊기 위해서는 미국을 필두로 미사일 및 핵보유국 모두가 발사실험과 임계전 핵실험을 포함한 모든 실험을 동결하고, 군사 대결관계가 아닌 평화공존관계를 구축하는 전제로서 어떤 형태에서 상호신뢰를 배양시켜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합의 내지는 공유가능한 평화구상으로 다양한 곤란함을 극복하여 실현시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안정성 높은 정책제언과 군사주의에의 의존을 거부하는 평화의식의 확인을 반복하여 행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은 확실히 미군재편에 의한 일미군사동맹의 강화 및 일미 운명공동체론이 이 나라의 언론계와 여론에 한층 깊이 뿌리박은 결과가 되고 있다. 평화구상과 평화실현에의 방도를 설명하는 것이 동시에 북한에 대한 융화론과 동정론으로 인식되고 마는 위협성 속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내지 물리적 제재를 배재해서는 안된다는 ‘진보적 지식인들’조차 등장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핵무장을 공공연히 입에 올리는 언론인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래서 이같은 여론의 지원을 받은 많은 정치가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군축과 군사주의에의 지지를 얻기에 분주하고 있다. 이처럼 다른 나라의 ‘위협’을 핑계 삼아 사실상의 「임전국가」 화에의 공감을 부채질 하는 것은 평화실현의 방도를 위하여 토론을 다하는 노력을 방기하는 행위와 같다. 그것은 1940년대 대정익찬회5)적 시대상황과 지나치게 비슷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현재의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우선은 <군사화>를 무의식 속에서 수용하고 마는 <내재하는 군사주의>의 극복이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 그 의미에서 미군재편문제란 단지 군사문제도 정치문제만도 아니다. 우리들 자신의 <군사화>의 수준이 어디쯤인가를 묻게 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번역 | 김분석, 김두한

대체 평화가 무어냐?
오키나와에서 만난 4박 5일간의 평화

서울 평통사 김슬기

쫓8월 16일(수) 첫째 날, 오키나와와 만나다

새벽 6시 30분, '평택에서 오키나와까지 평화기행단'은 인천공항에 모여 반갑게 수인사를 나누는 후 미국에 대한 테러위협으로 인해 까다로워진 검색을 통과하여 오키나와로 출발, 11시 30분 경 나하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평화기행단은 평통사 최선희 교육국장을 단장으로, 평통사 회원사업팀 김현진 부장, 서울평통사 김슬기 홍보부장, 이낙호 선생님, 김경자 선생님, 평통사 노은아 회원, 부친 의제 21 이숙 사무국장,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이은우 사무처장, 중학교 3학년 학생인 최지웅, 유재현, 이상휘, 고등학교 1학년 유준현, 성지수, 고등학교 2학년인 이아람 이렇게 열네 명으로 구성되었다.

공항에는 우후자토 교회 기요코 상, 통역을 맡아주신 히로유키 상과 토오코 상이 마중을 나오셨다. 히로유키 상은 기행단의 첫 방문지인 우후자토 교회로 가는 버스 안에서 '오키나와 총인구는 약 130만 명이고, 160여개의 섬으로 이뤄졌으며, 유인도는 50여개에 이른다. 오키나와는 류큐 왕국으로, 일본과는 다른 독립 국가였으나, 19세기 말 전쟁을 거쳐 강제로 일본에 편입되었다.'며 오키나와 역사를 간략하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우후자토 교회 부근의 아름다운 해변에서 잠시 동안 해수욕을 즐긴 기행단은 오후 8시부터 평택과 오키나와 미군기지 반대운동에 대한 브리핑, 참가자 소개 시간을 가졌으며, 주민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준비한 '평화가 무엇이나(평택지킴이 조약골 님이 작사, 작곡한)' 노래를 배웠다.

쫓8월 17일(목) 둘째 날, 우리의 하늘을 날지마라(Don't Fly Over Our City-U.S HELOS OUT NOW!)

우후자토 교회의 테히라 나즈메 목사의 안내로 먼저 가가즈 고대공원을 방문했다. 그곳에는 2차대전 당시 오키나와에서 희생된 일본 군인들과 강제징용당하여 희생당한 분들을 위로하는 기념탑과 전망대가 있었다. 기념탑은 일본 우익 세력이 세운 것으로서, 조선에서 강제징용당한 사람들 중 납한 사람들만 언급하며, 일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희생된 동포들을 욕되게 하고 있었다.

우리에게 익숙한 후텐마 기지가 위치한 기노완 시청을 방문했다. 시청 옥상에 올라가니 옥상 바닥에 'Don't Fly over Our City! U.S. Helos Out Now!(우리의 하늘을 날지 마라! 미군의 헬기는 당장 나가라!)'라는 구호가 적혀 있었다. 이 구호는 아주 커다랗게 쓰여있어서, 후텐마 기지에서 뜨고 내리는 헬기가 선명하게 볼 수 있다고 했다.

기노완 시는 시장을 비롯하여 온 주민들이 후텐마 미군기지 반환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우

리는 시청의 기지 정책과에서 일하고 있는 야마꾸지 씨로부터 후텐마 기지 반환운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시청에 기지정책과를 두고 반기지 운동을 전개하다니... 미군기지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는 우리 정부와 비교되어 부럽기까지 했다.

후텐마 기지는 헬기 중심의 기지로 기노완 시 면적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헬기를 포함한 군용기 52대 정도가 항상 대기하고 있다고 한다. (전에는 70여대가 넘었는데 지금은 이라크에 가 있단다.) 활주로는 2,800m이며, 기지 주변을 도는 훈련이 가장 위험한데, 하루 평균 150여 회의 헬기 이착륙 훈련이 반복되는데 많을 때는 200~300회 에 이른다고 한다. 가장 위협적인 훈련은 헬기가 미군기지 주변을 1~3시간 저공으로 비행하는 것으로 추락 위험이 큰데, 실제로 지난 2004년에 오키나와 국제대학에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기노완 시장은 미국을 방문하여 후텐마 기지 반환과 저공비행 훈련 중단을 요구했으나 미국 정부는 물론, 일본 정부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최근 미국 내의 기지에서는 주택 위로 헬기를 날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기노완 시는 이를 후텐마 기지와 비교하는 발표를 2007년 3월에 할 예정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기지를 반환 받은 후 사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기노완 시 사업 중 하나다.

이렇게 기노완 시가 반기지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의 힘 때문이다. 평택 투쟁도 우리 국민들이 적극 지지하고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고민이 크게 다가왔다.

우리의 다음 일정은 가테다에 있는 미군기지 자료관 방문이었다. 이 자료관은 가테다 역 건물에 들어있는데, 가테다 미군기지 바로 옆에 있고, 4층 옥상에는 CCTV가 설치되어있다. 기지를 향해 있는 이 CCTV로 주민들은 미군기지 내의 사고를 감시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는 북, 중국, 러시아 인공위성의 송수신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요미탄 기지도 둘러보았다. 일명 코끼리 우리(elephant cage)라고 불리는 기지는 주민들의 기지 반환 투쟁의 성과로 반년 후 북부의 캠프 한센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땅주인들과 미군이 직접 임대계약을 맺고 기지에 필요한 땅을 빌려준다고 한다. 요미탄 기지 일대는 트럭, 탱크, 사람이 낙하연습을 하는 곳이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불꽃을 여기저기 피어놓아 야간 연습을 중단시켰고, 낮에는 인분을 여기저기 뿌려놓아서 낙하연습을 방해했다고 한다. 주민들의 상황에 걸맞는 창조적인 방법으로 싸움을 하고, 결국 시설반환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정말로 놀라웠다.

쥬8월 18일(금) 셋째 날, 하에바루 문화센터, 이도가즈 동굴, 평화공원. 그리고 헤노코 기지 건설 저지 투쟁 이야기

오키나와 남부의 하에바루 문화센터에는 2차 대전 당시 오키나와 전투에서 희생당한 일본군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었다. 당시 병원으로 쓰인 이도가즈 동굴에는 약 3천명의 일본군 부상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일본군에 의해 몰살당했다고 한다. ‘전력약화’와 ‘기밀 유출’을 우려하여 부상자들을 죽였다는 것이다.

병원으로 사용되었다는 엄청난 규모의 이도가즈 동굴에도 가 보았는데, 각 병동별로 공간이 나누어져 있었고, 각 공간별로 어떤 사용처였는지 설명하는 팻말이 세워져 있었다. 동굴 안은 너무 어둡고 음산해서 빨리 나오고만 싶었다.

다음 일정으로 평화공원을 찾았다. 우리가 조선인 희생자들의 기념비에 조의를 표하고 있을 때, 일본 누카가 후카로 방위청 장관이 그곳을 찾아온 것을 알게 되었다. 나쓰메 목사는 장관을 향해 “오키나와에 미군기지는 필요 없으니 도쿄로 가져가라!”고 소리쳤다. 우리 일행인 이낙호 선생도 “전쟁에 대한 아무런 반성 없이 또 다시 전쟁을 일으키려 하나!”고 소리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 날 저녁 테헤라 나쓰메 목사는 헤노코 기지 저지 운동에 대해 들려주었다.

“헤노코 해상기지 건설 저지를 위해 지난 8년간 운동해왔다. 완전 저지 비폭력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자신이 죽게 된다고 해도 폭력 사용을 하지 않으며 완강하게 기지건설을 저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기지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투쟁방법을 고민했는데, 일본에서는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조업을 중지하고 구조해야한다. 바다에 빠진 사람을 돕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투쟁하기로 했다. 우선 카누 타는 연습을 시작했는데 파도가 심해도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연습이 가장 어려웠다.

첫 기지건설을 저지 해상 시위는 2시간동안 전개되었다. 카누 한대가 뒤집어지자 방위시설청의 진입은 중단되었다. 돌아갔던 방위시설청 사람들이 다시 진입을 시도해서, 결국 폭력 투쟁을 통해 방위시설청 사람들을 막아냈다. 이 때 비폭력을 지켜내지 못했음을 반성하고 다시 비폭력으로 저지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그 이후 해상 투쟁의 방식은 모터 보트에 카누를 연결해서 이동하는 것으로 되었고 사람들은 방위사업청이 해상 기지 건설의 기초작업을 위해 파이프를 바다로 던지면 맨손으로 이 6m나 되는 파이프를 잡아냈다. 방위시설청은 바다 속에 던진 파이프들을 모아 기초 구조물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주민들은 이 작업을 막기 위해 산소마스크 없이 4~5m 바다 밑으로 들어가 파이프를 잡아내는 일을 계속 했다. 깊은 바다 속에서 파이프를 잡고 있으면 숨을 못 쉬어 죽을 것만 같은데 이렇게 죽어야하나, 살아서 저지행동을 계속 해야하나 하는 갈등으로 괴로웠다.

나중에는 다이빙옷을 입고 산소통을 매고 내려갔다. 총 150여회의 다이빙을 했는데 방위시설청 사람들은 산소마스크를 빼앗으려 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 카메라 기자에게 부탁하여 같이 내려가니 폭력행위가 줄어들었다.

우리는 방위시설청 측 작업 인부들에게 “우리는 적이 아니다”라고 말해주었다. 항상 내 마음 속의 폭력과 싸워야한다는 다짐을 하며 그들을 대하려고 했다. 이러한 비폭력으로 일관하니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방위시설청 작업 인부들이 더 이상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다. 입장이 서로 다른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지금은 수영훈련과 더불어 다이빙 자격증을 따고, 대형면허증을 따는 준비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

미군기지 건설을 위한 일본 정부의 무자비한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저지활동을 벌여나가는 헤노코 저지행동 분들이 존경스러웠다.

쭉8월 19일(토) 넷째 날, 북부지역의 캠프 한센과 다시 헤노코.

캠프 한센은 2차대전 당시 미군에 의해 기지가 생긴 곳으로 일본에는 하나밖에 없는 미군 해병대 캠프다. 해병대는 제일 먼저 상륙하는 군대라 스트레스가 많아서 기지 앞에는 미군에 의한 범죄가 끊이질 않는다고 한다. 기지촌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상담센터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

헤노코에 도착한 우리는 지난 16년 동안 헤노코기지 건설반대운동의 정신적 지주라고 불리는 긴조 유지라는 분을 만났다. 또 아시코미 히로시 선생은 오키나와 연락회 회장으로 “평택 투쟁이 헤노코 투쟁보다 더 위대한 투쟁이고 존경한다. 매항리 폭격장 폐쇄 운동을 보면서 오키나와에서도 미군 기지를 몰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동아시아 미군 기지를 없애기 위해 한국과 같이 연대하자”고 말씀하셨다.

평화기행단은 헤노코 투쟁 동지들을 위해 ‘평화가 무엇이야’는 노래를 불렀다. 일본어로 노래가사를 번역해서 큰 종이에 가사를 적은 걸 보여드리니 헤노코 분들이 다들 노래가사가 정말로 좋다고 기뻐하셨다. 그리고 오키나와 평화기행 일정 내내 평화기행단 단원들이 한 땀 한 땀 직접 바느질해서 만든 우리말과 일본말로 된 ‘미군기지가 없는 평화를’의 아플리케 플랑을 선물로 드렸다.

평통사 회원사업팀 김현진 부장이 2003년부터 평택 투쟁 사진을 보여드리며 경과를 설명하고, 9월 24일 4차 평화대행진 10만 준비위원 모집에 대해 말씀드리자 즉석에서 10만 준비위원으로 서명과 함께 모금도 해주셨다. 뿐만 아니라 주민 한 분이 헤노코 앞 바다를 배로 태워주겠다고 즉석 제안을 해서 슈와브 기지와 해상기지를 건설 지역을 둘러보는 ‘특별행사’를 하게 되었다.

쭈8월 20일(일) 마지막 날, 다시 서울로

애초 이번 평화기행의 목적은 주일미군의 재배치를 주한미군 재배치와 연결하여 돌아보자는 것이었다. 아쉽게도 그 취지는 충분히 실현되지 못한 거 같다. 그러나 미군기지에 맞선 오키나와 주민들의 투쟁을 보며 미군기지를 반대하는 싸움은 우리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우리들의 투쟁은 이곳 오키나와 투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깊이 알게 되었다.

진정한 평화가 무엇일까? 이번 기행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긴 여정의 작지만 소중한 시작이었다.

중동의 피, 중동의 우주 전쟁

뉴욕, 미술인 최성희

“왜 세계가 우리에게 이러는 거야”(네즈와 웰허브, 이스라엘의 레바논 카나 학살 생존인, 7월 31일, 로버트 피스크 기사, 인디펜던트 인용)

“남쪽의 나무들은 말한다, 우리는 헤즈볼라라고. 돌들은 말한다. 우리는 헤즈볼라라고. 사람들이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된다면 그 돌들이 말할 것이다.” (이삼 주헤이르, 레바논의 차수리공, 8월 6일, 사브리나 테버니즈기사, 뉴욕 타임즈 인용)

뉴욕의 올 여름은 정말로 더웠다. 초 다국적 기업과 펜타곤의 합작-지구 온난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들러온 미국의 중동 전략의 일환으로 펼쳐진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레바논 침공 소식에 절망하지 않은 이 없으리라. 무엇보다도 국제 사회의 늦은 대응과 무관심에 더욱 소름이 끼쳤으리라. 그리고 헤즈볼라를 비롯한 중동 민중의 강인한 저항에 우리의 의지를 더욱 다졌으리라. 중동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다.

지난호 기사에 쓴 ‘우주의 무기화와 핵화에 반대하는 지구 연대 모임(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and Nuclear Power In Space, www.space4peace.org)’의 뉴멕시코 지부이자 동맹 단체인 ‘전쟁기계폐기(www.StoptheWar Machine.org)’의 활동가 밥 앤더슨과 동료 진 팔에게서 온 한 이메일을 요약한다.

제목은 “이라크의 우주 전쟁: 미국은 이라크에 레이저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가?”로 애미 굿맨의 7월 25일 독립 라디오 방송 “지금 민주주의”를 포워드한 것이었다. 뉴멕시코 주는 미국 내 핵무기 약 10,000여 개중 1/4을 보유하고 있는 주이자 공군 산하 레이저 무기 등 최첨단 무기 연구 실험실이 있는 곳이다. 무엇보다 밥과 진 두 사람에게 감사한다.

애미 굿맨은 이탈리아 RAI TV에서 방송된 마우리지오 토리엘타와 지그프리도 라누치의 다큐멘터리 필름, ‘이라크의 우주 전쟁’중 부분을 발췌했다. 나 역시 짧지만 그 곳에서 다시 부분들을 발췌해 본다.

내레이터 : (미 필름메이커 패트릭 딜론이 인터뷰한) 마지드 알 개잘리(바그다드 오케스트라 바이올리니스트)는 버스에서 죽은 세 명을 보았다고 합니다. 얼굴과 이빨은 불타 없어졌고 몸은 그대로라 합니다. 투사의 흔적이 전혀 없다 합니다. 투사되지 않은 몸뚱이는 간신히 1미터를 넘을 정도로 줄었고, 그리고 거의 동시에 다른 장소에서...

사드 알 팔루지 : 26명이 버스에 타고 있었죠. 20명가량이 머리가 없었어요. 잘려졌죠. 몇명은 팔이, 다리가, 다치지 않은 이는 운전사 밖에 없었어요. 그가 어떻게 병원까지 차를 몰았는지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손 하나, 팔 하나가 그의 무릎 위에 놓여졌고 머리 하나가 그 옆에 있었죠. 차 지붕위에는 장기, 뇌 등 이 흩어져 있었고...

그리트 반 무터(벨기에 필름메이커) : 의사 사드 알 팔루지는 생존자들이 말하길, 그들은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 합니다. 폭발음도, 총탄 파편도 없으니 의사들은 그들이 전혀 모르는 이상한 무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레이터 : 우리는 펜타곤 프레스 컨퍼런스 자료를 뒤졌습니다. 국방 장관과 마이어스 장군은 새로운 무기의 사용을 기꺼이 말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마이어스 장군 : 바로 그 점이죠. 프랭크스 장군은 그 점에 대해 매우 열려 있었고 기꺼이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것이 완전히 개발되기 전이라도 말이죠.

내레이터 : 우리는 미국 내 가장 중요한 군사 연구 실험실의 하나인 (뉴멕시코 주) 로스 알라모스 국가 실험실의 전 육군 대령이자 전 프로그램 감독인 존 B. 알렉산더를 만났습니다.

존 B. 알렉산더 : 디렉티드 에너지(directed energy)는 수십 년 동안 연구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발전해서 그 결실을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종류가 있는 데요. 기본적으로 광속으로 알려져 있죠. 레이저는 물론 빛의 범위 안에 있죠.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 에너지가 있죠.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빛 무기죠.

(다큐먼트실험 THEL(Tactical High Energy Laser)이 보여짐)

내레이터 : 전 펜타곤 분석가이자 워싱턴 포스트 기자인 윌리엄 아킨 역시 키네틱 무기에서 에너지 무기로의 전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아킨 :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물리 원칙이 사람들을 죽이는 데 적용 될 것입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모르는 채 죽을 것입니다.

내레이터 : 음향 무기를 차치하고 현재까지 에너지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 시나리오에서 알려진 것으로는 레이저 장치인 제우스(Zeus)가 있습니다. 펜타곤 공식 문서에 의하면 아프가니스탄에서 광산이나 급조폭발물(IED) 등을 폭발하기 위해 쓰였다고 합니다. Defense Tech, Defense Daily에 따르면 적어도 3개가 현재 이라크에 쓰이고 있습니다.

윌리엄 아킨 : 아마도 미국은 현재 1년에 5억 달러를 디렉티드 에너지 무기 개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럽 몇몇 국가의 국방비 전체와 맞먹죠.

한편 '우주의 무기화와 핵화에 반대하는 지구 연대 모임'의 브루스 개논은 실험용 대륙간 핵탄두 미사일이 7월 20일 미 캘리포니아 주의 밴던버그 공군 기지에서 태평양 마셜 군도의 과잘렌 환초로 발사되었음을 알려왔다. 핵폭탄은 1945년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보다 10-20배 강한 것이다.1) 그 실험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뻔하다.

또한 시리아와 이란을 노린 펜타곤의 크루즈 미사일이 이미 이스라엘로 떠났다 한다.

미셸 초스도프스키는 7월 26일에 "레바논 전쟁과 석유 전투"라는 글2) 에서 왜 지리정치학적 장애인 레바논을 압박하는 것이 이스라엘로서 필요한지 한 요인을 말하고 있다.

“터키와 이스라엘은 물, 전기, 가스, 석유를 파이프로 이스라엘에 실을 수십억 달러 프로젝트를 협상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그것은 다시 (팔기 위하여) 극동으로 갈 것이다.”

터키, 이스라엘, 미국은 중동의 삼각 동맹이다.
극동이라...
우리는 어느새 중동의 피 위에 서 있다.

홍근수 상임대표,

고희기념 출판기념회 및 축하잔치 열려

올해로 고희를 맞이한 홍근수 상임대표의 목상집 <일용할 양식>과 자서전 <나의 걸음> 출판기념회가 축하잔치와 더불어 8월 20일 향린교회에서 열렸다. 미국에 있던 홍근수 상임대표의 가족들도 참가한 이번 잔치에는 향린교회 신도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20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이와는 별도로 평통사 회원들은 8월 15일 홍근수 상임대표와 식사를 겸한 축하의 자리를 가졌다.

또한 8월 23일에는 홍근수 상임대표의 가족인 김영 목사와 홍정화씨가 평통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평통사 사무처 일꾼들과 만남을 가졌다. 김영 목사는 자신이 국제 운영위원회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비폭력 평화물결(Non-violent Peaceforce)'과 그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여러 방면에서 평통사와 함께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뉴욕 이민자연맹'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는 홍정화씨는 평화운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운동은 아니지만, 지금의 이민자 운동이 미국의 민권운동의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홍정화씨는 아버님인 홍근수 상임대표와 한국의 민족·평화운동을 보면서 정치적 각성을 하게 되었다며 항상 감사히 생각한다 고 하였다.

정화 안된 미군기지 일방적 반환조치에 항의행동 이어져

지난 7월 14일,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책임과 비용 부담에 대한 한미간 협상이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대한 위해가 가해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현재까지 19개 기지를 일방적으로 반환하여 환경오염 정화에 대해 책임회피를 피하고 있다.

이에, 시민·환경단체들은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을 결성하고 △오염자 정화 및 비용부담 원칙에 따른 주한미군의 책임을 분명히 할 것 등을 요구하며 미대사관 앞에서의 무기한 1인 시위 등 규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평통사는 매주 수요일 1인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전시작통제권,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반환받아야

전시작전통제권이 주권이나 아니냐 하는 어처구니없는 논란이 정리되는가 싶더니 정부는 △한미협조 기구 창설, △ 대규모 전력증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로드맵'을 발표하여 군사주권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 요구를 기만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평화누리통일누리> 58호의 '작전통제권 환수의 의의와 이후 대안'에서 볼 수 있다.

8·15 통일대회,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한미 FTA 체결 중단요구로 채워져

이번 8월 대회는 종속적인 한미동맹을 폐기하라는 민중들의 자주적 요구로 채워졌다. 또한 포항의 하중근 열사를 추모하며 노무현정권의 반노동자정책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도 강도가 높아졌다.

8월 1일, 700일 촛불행사 열려

100일, 200일... 700일이다. 9월 1일에는 촛불이 열린지 꼬박 2년이 된다. 김지태 이장과

몇몇의 주민들이 연행된 2004년 9월 1일 공청회사건에서 시작된 촛불, 2006년 9월 1일 김지태 이장은 구속 중. 마을을 떠난 주민들을 대신해 마을로 들어온 지킴이들은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는 일상을 극으로 꾸몄고, 지킴이 조약골씨는 “사람들이 살아요”라는 노래를 만들어 불렀다.

“대추리 도두리 마을에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살아요. 황새울 들판을 가꾸면서 미군기지 확장을 막아요. 그런데 황새울 들판에는 전경과 군인들도 살아요. 철조망 쳐놓고 길을 막고 폭력을 휘두르는 정부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다 하며 주민을 쫓아내려 한대요. 세상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전쟁을 원하는 사람들은 무기 팔아 돈을 버는 자본가. 북종과 충성을 강요하며 기득권을 유지하는 권력자.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황새울 들판에 모여서 손잡고 노래하며 춤추며 올해도 농사를 지어요”

청와대 앞에서 대추리까지 289리,

“평화야, 건자”

7월 5일부터 9일까지 “평화야 건자” 행사가 열렸다. 서울 청와대 앞에서 출발한 행진단은 9일 원정리까지 걸었다. 문규현 상임대표와 변연식 공동대표가 전 일정을 함께 하였다.

한편, 8일에는 안정리 상인들로 보이는 이들이 행진단을 각목과 달걀, 페인트로 폭행하고, 경찰은 수수방관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더욱 가관인 것은 평택 경찰서로 항의하러 간 행진단을 경찰이 모조리 연행한 것. 현재는 이에 대한 인권위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밴쿠버 세계 평화포럼, 아가타 선생 참가

6월 23일부터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세계평화포럼에 아가타 하운 선생이 평통사 대표로 참가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대에서의 미군기지와 평화(Military Bases and Peace in the Asia-Pacific)’을 발표하고 평택 문제에 대한 사진들을 전시하는 등 기지 확장을 저지하는 한국민들의 투쟁을 알렸다. 평화포럼에는 뉴욕의 최성희 선생도 참여하였다.